

#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김승보 · 박태준 · 서유정

## 머 리 말

---

탈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불안정해지는 개인의 진로경로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 및 청년실업 현상 등과 겹쳐지면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때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 등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활동이 포함된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을 정규교과 내로 도입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목이 중학교 단계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으며 1,5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고교에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진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실천 과제가 부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의 업무량 증가 등 정책추진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의 매칭과제로서, 포럼의 세부 주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뒷받침을 위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피드백하고, 단위학교의 현장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발굴하며, 현장 사례를 통해 현재의 교육제도 및 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진로교육 관련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운영될 때 실효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원 김승보 연구위원이 책임자로서 박태준 연구위원, 서유정 전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각종 조언과 더불어 실천사례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그리고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각계의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201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 제목 차례

### 요 약

####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4절 기대 효과 .....	7

#### 제2장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_9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왜 “창의적 체험활동” 인가? ....	11
제2절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18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	29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36

#### 제3장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강화 방안\_59

제1절 왜 직업세계 이해교육인가? .....	61
제2절 초·중등 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 및 문제점 ...	68
제3절 직업세계 이해교육과 관련한 정책 현황 .....	76
제4절 직업세계 이해도 증진을 위한 개선 및 정책 방안 .....	84

<b>제4장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 방안_107</b>	
제1절 배 경 .....	109
제2절 교육기부의 개념 및 유형 .....	110
제3절 교육기부 사례분석 .....	114
제4절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고려사항 .....	119
제5절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	124
제6절 교육기부 활성화의 기대효과 .....	136
<b>제5장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_141</b>	
제1절 학부모 학교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 .....	143
제2절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 추진현황 .....	147
제3절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문제점 .....	154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168
<b>제6장 요약 및 제언_193</b>	
제1절 요약 .....	195
제2절 제언 .....	200
<b>SUMMARY_147</b>	
<b>참고문헌_151</b>	

## 표 차례

<표 2-1>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 규모 추이 .....	11
<표 2-2>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 추이 .....	12
<표 2-3> 견학, 체험활동 등 청소년 참여형태(복수응답) .....	13
<표 2-4> 체험활동 교육과정 변천 .....	16
<표 2-5> 전국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현황 (2009. 12월 기준) .....	21
<표 2-6> 교과교실제 연도별 확대 계획 .....	22
<표 2-7> 창의적 체험활동의 업무 분담 및 배분 형태 .....	31
<표 3-1>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	65
<표 3-2> 청소년의 주요 고민 대상 .....	66
<표 3-3> 장래 희망직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 이유 (복수응답 가능) .....	66
<표 3-4> 고교진학시 계열 선택 이유 .....	67
<표 3-5> 직업 변경 의향 세대 간 비교 .....	67
<표 3-6> 한국과 영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현황 .....	70
<표 3-7>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에 언급된 직업의 횟수와 종류 .....	72
<표 3-8>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	83
<표 4-1> 교육기부 방법 및 내용 .....	114

<표 5-1>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유형 .....	145
<표 5-2> 학부모 학교 정책 모니터단 운영 현황 .....	149
<표 5-3> '11년도 시·도별 학부모 교육정책 오프라인 모니터단 인원(총 500명) .....	149
<표 5-4> 2011년도 사업별 예산 지원 계획 .....	151
<표 5-5> 학부모회 현황 .....	156
<표 5-6> 2011년 학교급별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 .....	156
<표 5-7> 학교별 학부모 모임 주요 개최시간대('10) .....	157
<표 5-8> 2010년도 각급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	157
<표 5-9> 녹색어머니회 조직 현황 .....	158
<표 5-10>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부모메뉴의 접근성 .....	162
<표 5-11>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부모메뉴의 활성화 정도 .....	162
<표 5-12> 주요국가별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 .....	173

## 그림 차례

[그림 2-1] 창·체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교사 인식도 .....	29
[그림 2-2] 창·체 영역별 편성 현황 .....	29
[그림 2-3]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을 위한 교사 업무 흐름도 .....	33
[그림 3-1] 청소년의 주요 직업선택 요인 .....	64
[그림 3-2] 학교급별 4차 척도에 따른 직업 인식 수준 .....	68
[그림 3-3] 중1/고3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 .....	69
[그림 3-4] 영국 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71
[그림 3-5] 한국 청소년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 .....	71
[그림 3-6] 초·중·고등학생의 직업정보 취득 방법 .....	72
[그림 3-7]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 언급되는 직업의 종류와 빈도 수 .....	73
[그림 3-8] 중1/고3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 직업 .....	75
[그림 3-9] 교사의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	76
[그림 3-10]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블록 쌓기 .....	92
[그림 5-1] 향후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참여의사 조사 .....	158
[그림 5-2] 가정-학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설문 조사 .....	159
[그림 5-3] 학부모-교사 면담여부 .....	164
[그림 5-4] 학부모 상담주간 참여 .....	164
[그림 5-5] 가정-학교 간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학부모) .....	165
[그림 5-6]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	166
[그림 5-7] 지역별 녹색어머니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현황 .....	167





## 요 약

### 1. 연구 개요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기 이후의 진로경로가 복잡화되면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활동이 포함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정규교과 내로 도입하였고,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중학교 단계에서 선택과목 전환,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진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실천 과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진로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문제해결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의 매칭과제로서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학교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둘째 초·중등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현황 및 과제, 셋째, 교육기부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정책적 과제, 넷째, 학부모 학교 참여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체험 및 방문활동은 사교육이나 개인적 차원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으며, 사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의 재능계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는 학교교육이 흡수해야 할 내용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비교과 영역의 강화는 방과후 학교와 더불어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 흡수 및 가족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수요를 공교육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과 교육과정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획일적인 사고와 기준을 요구하며, 교과 영역의 정규수업은 단순지식의 전달위주로서 토론과 실험, 실습 및 체험,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의 체험형·탐구형 학습은 취약하였다. 미래의 교육체제는 일과 학습, 레저 등의 경계가 허물어진 열린 통합 교육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력 구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위한 정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과정 및 실천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부분에서 교사들이 중요시하는 영역과 실제 영역별 편성 현황이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어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편성의 물리적 환경 및 콘텐츠 구성의 어려움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원의 행정업무에 관해선 업무가 일부 교사에게 쏠리는 현상이 있거나, 이에 따른 교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문제와 학교 밖의 외부활동을 학급별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및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지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3.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국내외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부실한 직업 이해교육 실태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진학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과 문제점으로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가치 판단이 전달되어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추구형 직종이 인기를 끌며, 학교가 제공하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교과서조차 언급된 직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왜곡된 직업관을 낳고 있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도 심각한 상태이다.

직업세계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는 초·중등 단계에서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이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하며, 학교 안팎으로 직업이해교육 및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4. 교육기부의 개념과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최근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에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이 교육기부 주체와 교육 수혜자를 효율적으로 연계 지원하기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기존의 인적기부 조직이 법인화하여 활동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교육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부금품 경로 확보 및 인적기부 조직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시설 관련 기업이 주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교육기부에 있어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될 수 있음이 우려되며, 지역별 교육기부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연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교육기부는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의 관계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부와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기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육기부 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

원의 적극적인 참여, 교사, 교장 등 학교 구성원의 지역 학습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5.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안과 그를 통한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사회 ‘교육 에너지’로써 학부모의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활용하는 정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제도권 밖의 사교육이나 해외교육으로 분출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 에너지는 공교육 내실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위상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단순히 공교육의 자원봉사자 확장 정도를 넘어 교육개혁 및 학교혁신의 추진동력으로서 위상을 재점검해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부모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 법령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학부모 관련 조직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양적, 형식적 체계에 있어서 대체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교육 및 활동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당국이 주도하는 경향이 커서 학부모의 자발성으로 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많은 활동이 학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하기보다는 ‘관행화’하여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커 활동의 역동성 또한 떨어진다. 한편, 공교육의 많은 영역이 학부모의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노력에 합당한 인정 및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6. 결론과 제언

탈산업사회가 진점됨에 따라 직업 환경 또한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 등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직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소질 및 적성, 흥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직업정보의 탐색 활동 및 장래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의 진로교육은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제언 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학교 전체의 창의성 교육 신장을 위한 매개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물리적·병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매개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정규 교과과정 및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 않으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사례에 맞는 구체적 컨설팅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연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목록화 하고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제언 2.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 단계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하며, 과목별로 교과서 등에 소개되는 직업세계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초·중등 단계 직업세계 이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접하고 폭넓은 직업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서 직업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 단위학교, 교원 등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뿐 만 아니라, 정부부처별 협력체계 활성화, 학교와 외부자원의 협력체계 강화, 외부자원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 등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제언 3.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 방안

교육기부 지원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육기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형자산 기부의 효율적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기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부된 무형자산에 이용 신청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부 활동과 각 급 학교를 통해 접수된 교육기부 활용 내역을 기초로 하여 교육기부 참여자 또는 교육기부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제언 4.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의 자율 활동 영역 확보 및 지원, 자율적 학부모 활동을 위한 예산의 독자성 확보, 학부모회 중심의 자율적 연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 참여 층의 다양성을 강화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체계의 확대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한다. 학부모를 위한 학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일반 학부모의 참여구조를 확장하는 등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학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기대 효과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이념적 정치적 입장 및 접근에 의해 논의과정이 왜곡되어 학교현장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로까지 가지 못함.
-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직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소질 및 적성, 흥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직업정보의 탐색 활동 및 장래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의 진로교육은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를 통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음.

#### 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또한, 단발성 진로교육이 아닌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
-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및 방문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지원에 대해 학교 예산 및 학교 자체적 노력 만으론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함.

## 제2절 연구 내용

### 1.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진로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정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 및 협의회를 통해 이슈별 문제점 진단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마련
- 교육현장 및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안 접근

### 2. 현장사례 발굴

- 현행제도 혹은 교육정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및 우수사례 현장 보급을 통해 일반화
- 사례발굴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도운영의 성공요인 혹은 실패요인을 분석

### 3. 이슈별 문제분석

- 진로교육 이슈별 문제점 검토 및 의견 수렴
- 학교현장 방문, 현장 중심의 간담회 개최, 전문가의 현장 교육실천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운영의 성공요인 혹은 실패요인 분석

### 4. 정책의 구체적 개선점 제안

- 진로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정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 및 협의회를 통해 정책추진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점 도출
- 정책현안 분석 및 현장사례 연구를 통해 문제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제3절 연구 방법

### 1. 문헌 분석 및 관련 통계조사분석

- 각 이슈별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와 개별 학교 사례, 국내외의 관련 문헌 등을 수집, 검토, 분석

## 6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교과서 직업 현황, 서울시 중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메뉴 접근성 조사 등의 이슈별 지표분석과 통계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 2.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이슈별로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우수 사례인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 등과의 인터뷰를 실시
- 이슈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책의 방향을 구안

### 3.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 교육과정 전문가, 교사, 학부모, 일반 교육학자,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통해 문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 4.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 워크숍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 및 협의회를 실시
- 이슈별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각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 제4절 기대 효과

1. 진로교육 관련 각 이슈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정책 도출
2.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진로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3. 학교 안팎의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





## 제2장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왜 “창의적  
체험활동”인가?

제2절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제2장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왜 “창의적 체험활동”인가?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은 공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 정책
  - 사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의 재능 계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학교교육이 흡수해야 할 내용임.
    - 한 해 약 4조원 정도의 비용이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의 학교 밖 사교육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수강 목적은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이 93.2%(2010년) ~ 93.7%(2008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표 2-1> 참조]

〈표 2-1〉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 규모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총액	3.88조원	4.14조원	4.18조원	3.88조원
초등학교	3.01조원 (77.6%)	3.04조원 (73.5%)	2.92조원 (69.8%)	2.83조원 (73.0%)

\* 통계청 각 연도

12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참여율 측면에서도 사교육 전체의 약 35% 내외가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의 학교 밖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이들 분야가 전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음(통계청)[<표 2-2> 참조].

〈표 2-2〉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 추이

(단위: %)

연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2007	37.0	61.4	15.1	10.3(9.9)
2008	35.3	60.4	13.5	10.6(10.2)
2009	34.8	59.6	15.4	10.5(10.1)
2010	33.3	58.2	14.3	10.4(10.0)

\* 통계청 각 연도

-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체험 및 방문활동은 사교육이나 개인적 차원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 견학활동 등에 있어서 학교(82.0%)가 가장 높으나, 가족 단위(56.8%) 혹은 학원(13.8%)을 통한 활동도 적지 않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연관람활동은 학교(36.2%)보다는 가족(59.6%)이나 학원(7.2%)을 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2-3> 참조].
  - 야외자연체험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학교(55.7%, 25.9%)와 가족 단위(52.5%, 25.1%)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낼 정도로 공교육을 통한 기회 제공이 미흡함.
  - 가족단위나 학원을 통한 체험 및 방문활동은 공교육에 비해 전문성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미진할 수밖에 없으며, 사교육비 및

가계의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어 계층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표 2-3〉 견학, 체험활동 등 청소년 참여형태(복수응답)

(단위: %)

구 분		학교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학원을 통해서
견학활동 참여	전체	82.0	56.8	13.8
	초등학교	82.4	75.5	25.5
	중학교	81.2	56.7	11.0
	일반계고	82.6	39.1	4.0
	전문계고	82.0	27.9	2.3
공연관람활동 참여	전체	36.2	59.6	7.0
	초등학교	32.8	78.8	13.1
	중학교	29.7	62.1	5.6
	일반계고	46.1	40.0	1.8
	전문계고	46.0	29.5	1.6
야외자연체험 활동 참여	전체	55.7	52.5	7.2
	초등학교	45.5	66.6	13.6
	중학교	57.8	51.2	4.3
	일반계고	68.9	36.3	1.6
	전문계고	61.3	33.3	2.1
스포츠 활동 참여	전체	25.9	25.1	14.8
	초등학교	22.6	35.8	26.2
	중학교	26.7	25.7	12.0
	일반계고	29.1	14.0	5.1
	전문계고	26.8	12.9	8.5

출처: 임지연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IV: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표 변형)

#### 1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학교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비교과 영역의 강화는 방과후 학교와 더불어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 흡수 및 가족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수요를 공교육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의미가 있음.
  -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 증가에 따라 공교육 부문의 역할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방과후 학교 활동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수용할 수 있음.

#### □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학교의 창의성 교육 구현의 시발점

- 다가오는 사회는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
  - 미래의 교육체제는 일과 학습, 레저 등의 경계가 허물어진 열린 통합 교육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 교육과정이 중요

“미래사회는 기존 지식의 암기나 단순 반복보다는 스스로 독창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중시됨. 따라서 미래사회는 지식이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됨을 가정하고, 학습은 모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게 됨”(강영혜 외, 2009).

- 지금까지의 교과 교육과정은 창의력 신장과는 큰 괴리
  -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와 기준을

요구하며 객관식 선다형 평가방식은 다양한 해결책보다 1개의 정답을 요구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저해함(김왕동, 2009).

- 교과 영역의 정규수업은 지나치게 단순지식의 전달 위주이며 토론과 실험, 실습 및 체험과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의 체험형·탐구형 학습은 대단히 취약함(홍후조, 2008).
  - 대학 입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교과목조차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재량·특별·봉사 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은 많은 경우 형식적, 변칙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장견학, 봉사활동,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창의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 부족
  - 사회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창의력 신장 교육이 학교교육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영역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며, 교과-교과 외 활동영역의 총체적 열개를 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실천교육이 가능한 체험적 공간인 교과 외 활동 영역의 본래적 위상 회복이 요구됨.
- 창의력 구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발점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 이래 교과 교육과 교과 외 활동의 두 영역으로 편제되어 왔음.



〈표 2-4〉 체험활동 교육과정 변천

교육과정	시기	특 징
제1차	1955 ~ 1963	·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특별활동이 편성되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음.
제2차	1963 ~ 1973	· 특별활동이 학교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음. · 아동들의 현실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자주적으로 창조성을 기르게 하는 방침으로 ‘자주성의 육성’을 강조하였음. · 1969년 다시 부분 개정되어 ‘학급활동’, ‘학생회(아동회) 활동’, ‘클럽활동’, ‘행사활동’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활동의 지도 내용이 확대됨.
제4차	1982 ~ 1987	· 학급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통합하고 특별활동을 학생회(어린이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구분 · 클럽활동과 학교 행사의 영역에 ‘학교 특정 활동’과 ‘학교 특정 행사’를 설정
제6차	1992 ~ 1997	· 종래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 ·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 특별활동’ 외에 ‘학교 재량 시간’ 신설(초등학교) · 특별활동의 영역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 활동으로 나누었고 초·중학교의 경우 연간 최소·최대 시간 양을 제시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제7차	1997 ~ 2007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구성 ·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 · 신설된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 ·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 12. ~	· 2009년 6월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12월 고시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외 활동의 실효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함.

- 교과 외 활동은 애초 학생들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주요 도입 취지가 있음. 그러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같은 교과 외 활동 영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 교육과정에서 주변적, 보조적 역할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 주어진 시수 안에서 하위 영역별 활동으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운영됨.
- 창의적 체험활동은 개념적으로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기능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하며, 또 방법적으로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 체제 안에서 창의·인성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은 교과에서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통합형 교육, 체험이 강화된 탐구활동,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다양한 경험과 공동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성 구현의 출발점으로서 그 역할과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인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 등도 과거와 같이 분절적 접근으로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이들 하위 영역 간의 통합이나 교과와 연계한 운영 그리고 학교교육 전체의 통합적 운영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학교교육이 학교교육활동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현실에서,

입시제도 자체의 변화를 피하는 입학사정관 정책 도입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본원적 기능 회복 및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의 의의가 있음.

## 제2절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 도입

-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내용 간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의 후속 방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책적으로 도입함.
-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제 10회 전체회의(2009. 8.17)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채택
  - 교육과정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13)
  -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
    - ※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교양 선택으로 개선,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폐지

※ 초·중학교 재량활동에 편성하던 ICT, 성교육 등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편성하지 않으며, 필요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장 권한으로 운영 허용

▪ 초등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고, 중·고교는 주당 3시간 이상 운영하는 등 강화

※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 학부모 68%, 교사 66% 찬성

▪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안은 학교에 일임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국가, 교육청, 지자체는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2009. 12. 23)한 후, 곧 이어 2010년 1월 5일에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 이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통한 교육적 성취의 내용과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음.

####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운영 현황

○ ‘창의·인성교육 시범 지역교육청’ 16개 지정·운영(’10. 3. 26)  
- 16개 시·도교육청별로 1개 정도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선도학교’(초등 194교, 중등 126교)와 공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모든 자원(시설, 프로그

2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램, 인적자원)에 대한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작성·제공하게 됨.

※ 2011년도에는 178개 모든 교육지원청 관내의 자원들이 발굴 수록될 계획

- 교육기부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방안('10. 5. 18)
  - 첨단장비 및 시설·고급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출연(연)·대학 등을 활용
  - 청소년 수련시설·인력(여가부), 문화예술 시설·인력(문화부), 직업교육 시설·인력(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보유한 자원 활용
  - 2011년 178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인솔·교육 등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창의체험지원단(장학사·인턴교사·대학생·학부모 등 자원자들로 구성)이 구성될 예정임.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 실시('10. 12. 23)
  - 2010년 겨울 방학 중('11.1월~2월) 전국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21개 초·중학교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하여 8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5개 국립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 진행
  - 전국 630여개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중 여건이 되는 기관과 동 기관들이 운영(예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창의적 체험활동에 가장 부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
  - 주관기관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지역의 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계자도 함께 참여

〈표 2-5〉 전국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현황 (2009. 12월 기준)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계
박물관	32(7%)	103(22%)	225(48%)	106(23%)	466(100%)
미술관	2(2%)	18(17%)	80(76%)	5(5%)	105(100%)
과학관	5(8%)	31(50%)	26(42%)	-	62(100%)
합계	39(6%)	152(24%)	331(52%)	111(18%)	633(100%)

- 교과부·문화부, 초·중등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본격 지원('11. 3. 4)
  - 지역 사회와 학교를 거점으로 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여 예술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과 문화 격차 기회를 제공함.
    - 교과부는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을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하여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65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를 선정하였고('11), 향후 100개 규모로 확대할 예정임.
    - 문화부는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전국 8개 지역문화재단을 거점으로 문화 기반 시설과 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지자체나 민간의 기존 사업 현장에 대하여 저명 예술인의 재능기부레슨, 캠프 등을 우산 형으로 지원할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회 지원('11. 3. 8)
  - 연구회 선정
    - 교육청 단위로 개발물이 부족한 학년·교과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20% 이상 배정, 중점 주제 분야 특화개발
    - 선정 방식: 교육청 자체 기준으로 선정

22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이 중, 연구회 200개는 지역 사회의 각종 자원(박물관, 미술관, 습지, 계곡 등) 등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회 800개는 그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했던 교과(예술·체육, 선택·교양과목) 및 학년(초등 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에 우선 지원하게 됨.
- '11년 창의·인성교육의 본격적 확산에 따라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 '10년 397개 ⇒ '11년 1,000개('11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 2011년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실시('11. 3. 8).

- 창의·인성교육 여건이 좋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11년 1,400교 예정) 및 창의경영학교('11년 2,652교 예정)에서도 교과별 창의·인성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 및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임.
- 연도별 확대 계획

〈표 2-6〉 교과교실제 연도별 확대 계획

구 분		'10	'11	'12	'13	'14
학교수 (교) *누적기준	중	352	673	1,000	1,800	2,800
	고	454	727	1,500	1,800	2,000
	계	806	1,400	2,500	3,600	4,800

-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계획('11. 4. 7)
  - 에듀팟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 '10년 중·고 → '11년 초·중·고, 입학전형자료 활용(초: 시범운영)
  - 편리성 증대를 위한 에듀팟 사용자 지원 강화
    - 중앙콜센터(전문상담원 배치) 운영
    - 응용 SW 개발·유지 보수
  - 체계적인 대상별 연수·홍보 추진
    - '에듀팟 잘 하는 법' 연수과정 운영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컨설팅 요원 양성과정' 시 에듀팟 연수 실시계획
  - 나이스(NEIS) 연계한 시스템 사용 절차 간소화로 교사 업무 경감 추진
    - 교사 승인절차, 학생정보관리(진급·졸업처리), 교무업무시스템 교사 업무분장,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제출 등의 연계를 지원하도록 함.

□ 타 부처의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 추진 현황

가. 여성가족부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지역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활성화 지원
    - 시·도별 워크숍 지원(10회, 1,170명), 지역별 설명회 운영(7개 지역, 2,053명)



2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우수 인증프로그램 발굴 및 사례보급
  - 우수 인증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도 제고('10년 100건 → '11년 150건)
-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 청소년활동 자원정보(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CRM 등록(1,000건)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용 권장('10. 9)
- 청소년시설의 체험활동 운영역량 강화
  - 청소년시설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 인력 배치
  - 배상보험 범위 확대, 안전등급제 도입 등 청소년시설의 안전도 제고
-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 대상 시범수련활동 운영
    - '10년 학교단체 수련(187교, 179,867명), 특성화캠프(33회, 3,734명), 가족캠프(32회, 3,651명)
  - 국립 및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속적 확충 추진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10. 7) 등
-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 및 연계체계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 중앙과 지역을 총괄하는 전달체계 확립
      -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단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종합·지원하도록 기능 강화
      -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교육청과 협력

- 지역사회 단위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자원을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
  - 청소년활동시스템 통합 및 교과부 시스템과 연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국제청소년성취포상·청소년자원봉사·청소년종합정보 등 개별시스템을 통합
  - 교과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창의체험자원지도’와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MOU)체결('10. 5. 24)

---

※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연계협력 분야**

-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 인프라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중앙 및 지역의 창의적 체험활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자원지도에 청소년활동 인프라(단체, 시설, 인력, 프로그램)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과 청소년활동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협력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 8. 18)
-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확대, 청소년 수련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사업 실시,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 멘토를 지원함.

-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0. 9. 6)
  - 청소년활동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청소년활동 통합정보 사이트(www.yrm.or.kr)를 통해 체험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문화관광체육부

-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sup>1)</sup>
  - 일선 학교의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예술교실에서 음악·미술 등의 충실한 예술 수업을 받게 하고 국어 등 일반 교과에서도 예술수업 기법이 활용
    - (예시1) 국어+연극: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강사가 공동 수업진행
    - (예시2) 영어+미술: 영작만화 그리기(카툰프로젝트)
-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sup>2)</sup>
  - 2012년까지 예술교육 선도학교를 약 1,000개교 지정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는 100개교까지 확대되며,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이 20개소 규모로 운영되고, 과학과 예술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또는 과학예술고등학교)도 1~2개교 설립

---

1) 문화관광체육부·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 발표(2010. 7. 8)

- 기존에 문화부-교과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예술강사 파견을 현재의 4,000명 규모에서 2012년까지 총 7,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예술강사 수혜율을 현재의 35%에서 50%로 확대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sup>3)</sup>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M: Arts education Resources Map)를 개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수업 등에 활용토록 함.
  - 주요대학과 MOU 체결, 초·중등학교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 등 예술교육 지원
- 예술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sup>4)</sup>
  - 문화부와 교과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문화분야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함.
- 문화부·교과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10. 9. 30)
  -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보, 체육교육 선도학교 '12년까지 500개교 지정, '15년까지 스포츠강사 2,500명 지원

---

2), 3), 4) 문화관광체육부·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 발표 (2010. 7. 8)

28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11~'15년까지 건강체력교실 2,000개교, 야간조명 등 1,000개교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스포츠 동아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 등에 반영토록 권장함.

다.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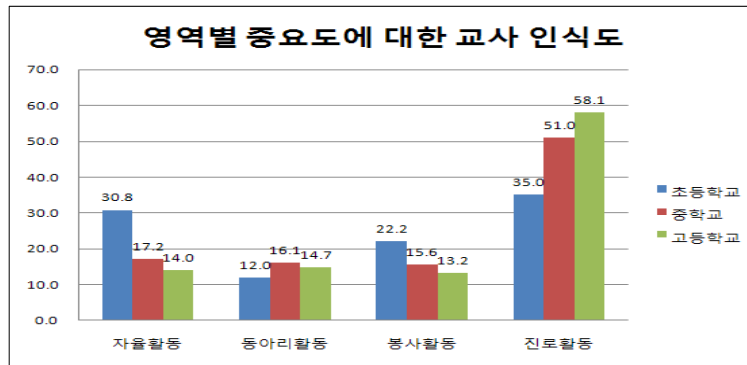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2011. 3. 22)
  - 2011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위탁할 운영기관 178개 대학과 53개 특성화고교를 선정, 3만 여명에게 147억원 지원계획
    - 「직장체험」, 「직업체험」, 「취업캠프」 3가지 형태로 구성
  - 「직장체험」은 대학 및 특성화고교 재학생에게 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1~4개월 동안의 연수 기회를 제공(178개 대학, 23개 특성화고)
  - 「직업체험」은 대학·기업과 연계하여 전문가 강의, 대학 전공체험, 기업체 견학 및 실습 등을 실시(40개 대학, 29개 특성화고)
  - 「취업캠프」는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진로상담, 이미지 메이킹 등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체험(141개 대학, 44개 특성화고)할 수 있게 함.

###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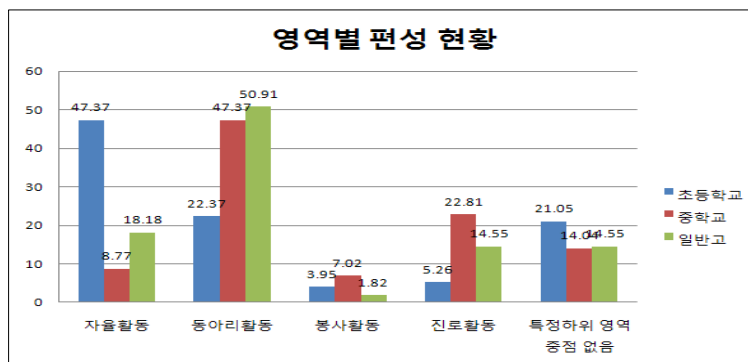
#### □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현황과 문제점

-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제 영역별 편성현황에 있어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 창·체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교사 인식도



[그림 2-2] 창·체 영역별 편성 현황



출처: 이광우(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고교의 경우 진로활동(58.1%)이 단연 앞서고 나머지 동아리활동(14.7%), 자율활동(14.0%), 봉사활동(1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실제 영역별 편성 현황에 있어서는 동아리활동(50.9%), 자율활동(18.2%), 진로활동(14.5%), 봉사활동(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특정 하위영역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균등 배정하는 경우도 14.6% 정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영역별 중요도 인식과 편성 현황의 차이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편성의 물리적 환경 및 콘텐츠 구성 등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가장 큰 괴리가 보이는 진로활동과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진로 체험 활동 장소 확보, 봉사활동 수요처 개발 등 환경 정비 및 진로 교육의 콘텐츠 보급 등 대책이 요구됨.
- 일선 학교의 창·체 관련 업무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재량활동의 연장선에서 운영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교 내 일부 교사에 업무가 쏠리는 현상 발생
- 다음의 <표 2-7>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봉사·진로활동은 교사 1~3명이 전체 학생들을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콘텐츠에 있어서도 ‘교내’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거나 활동을 축소하는 경우가 나타남. 창·체 활동의 취지에 맞는 진로 및 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학교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 풀을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를 분담·배분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착을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일반교사가 관

런 동아리 활동 뿐 만 아니라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멘토 등 일정 정도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 2-7〉 창의적 체험활동의 업무 분담 및 배분 형태

업무 내용	담당 교사 및 운영 형태	
	A고	B고
창·체 시수 편성 및 업무 총괄, 에듀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장: 연구부장(업무총괄), 교무부장(시수편성)</li> <li>· 에듀팍 담당: 담당교사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장: 특별활동 부장(시수 편성, 업무총괄)</li> <li>· 에듀팍 담당: 담당교사 1명</li> </ul>
자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활동: 담당자 1명 (자료제작 및 배부)</li> <li>- 자치, 적응, 행사활동: 담임 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특색활동 관련 업무 담당자</li> <li>- 독서교육: 도서관 사서교사, 일반교사</li> <li>- 토론형·협력형 수업 담당교사</li> </ul>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활동: 업무 담당 교사 1명 (예산지원, 교육청 보고)</li> <li>- 동아리 지도교사: 방과 후 지도, 수업 시수 포함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활동(19개)과 계발활동(70개) 동시 진행</li> <li>- 토요일(1,3주) 전일제</li> <li>- 정규 수업이므로 수업 시수에 포함</li> <li>- 방과후 수학·과학·미술 영재 학급: 수업 시수 인정 안함</li> </ul>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소속 봉사활동 담당 교사 1명</li> <li>- 교내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등 기존 특별활동 일환으로 실시해 왔던 것을 그대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담당 교사 1명</li> <li>- 외부 봉사활동은 전혀 없고, 교내 봉사활동 위주로 계획함</li> <li>- 다른 영역에 비해 봉사활동 시수 축소</li> </ul>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전문 상담 교사 1명</li> <li>- 진로 교과 수업을 진로활동으로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활동 담당교사 3명</li> <li>- 자기주도학습 연수를 받은 교사 3명이 1학년 학생 전체 대상으로 지도</li> </ul>

□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원의 행정업무 현황과 문제점

○ 창·체 활동에 따른 교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커 창·체



활동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예시 자료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교과부(2010).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_고등학교 매뉴얼 p.64)
  - 그러나, [그림 2-3]에서와 같이 현장 교사가 외부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면, 학교별로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 체험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정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차량을 이용한 원거리의 외부 체험활동은 대개 수익자 부담이므로, 차량 확보, 활동비 책정,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필요한 경비 지급 요구(에듀과인시스템), 여행자 보험 명단 작성, 사후 정산서 제출 등의 행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업무부담은 더욱 커지게 됨.
- 창·체 활동에 따른 행정시스템의 대폭 감축과 추가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장에 대한 구두 보고 및 전자결재의 단계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행정직원의 창·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들의 행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창·체 활동으로 인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림 2-3]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을 위한 교사 업무 흐름도

사전 조사 및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대상 조사</li> <li>○ 봉사 활동 내용 선정</li> <li>○ 봉사 대상 기관 협조 요청 및 봉사 대상 기관 관계자와 통화</li> <li>○ (교감, 교장 구두 보고 및 협의)</li> </ul>
↓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계획 수립(목표 설정, 활동 계획, 평가 계획)</li> <li>○ 학교장 결재 득하기</li> </ul>
↓	
참가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통신문 작성 및 발송: 학교장 결재 득하기</li> <li>○ 참가 신청서 받기</li> </ul>
↓	
활동비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비 책정: 학교장 결재 득하기</li> </ul>
↓	
운영위원회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회의 자료 제출하기</li> </ul>
↓	
차량 확보 및 경비 지급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 확보 및 계약</li> <li>○ 여행자 보험 대상자 명단 작성</li> <li>○ 경비 지급 요구서 제출: 에듀파인시스템으로 학교장 결재 득하기</li> </ul>
↓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전 학생교육 실시</li> </ul>
↓	
봉사 장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전 장소 배치 및 역할수행 내용 점검</li> <li>○ 현장교육 실시: 현장 상황 설명 및 활동상의 유의점</li> </ul>
↓	
봉사활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내용 역할 분담</li> <li>○ 봉사활동 실행</li> <li>○ 봉사활동의 진행 지도 및 감독</li> <li>○ 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대책 마련</li> <li>○ 봉사활동 내용 기록하기</li> </ul>
↓	
반성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li> </ul>
↓	
활동비 사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비 정산하기: 가정통신문 발송 및 정산 내용 결재 득하기</li> </ul>
↓	
에듀팍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팍 내용 (기록) 및 승인하기</li> </ul>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 추가적인 경비 발생

- 학교 밖 외부활동의 경우, 이동 비용 및 관람료 등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함. 현재 학교 예산의 수용비 항목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창·체 활동을 위한 경비는 수학여행 경비와 같이 수익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나친 경비 부담은 가계비 증가 등으로 한계가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학교일수록 예산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예산 증액 지원이 불가피함.

○ 학급 단위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학교 밖 외부 활동을 학급 단위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학년별 혹은 학교 전체가 같은 날에 창·체 활동을 실시하게 됨. 그러나 창·체 활동의 특성상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을 연초에 미리 계획하여 창·체 활동을 수행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음.
- 대개 학년별로 같은 날 창·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프로그램 진행의 부담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그 활동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음.

○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 학교 밖 활동 시 모든 안전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교사 및 학교장에 있어, 교원은 안전책임 문제를 과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음.

-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교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시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및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많은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의 보상 및 처리가 가능하나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사고처리 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학교안전 사고 발생시 대처 실태〉

-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공제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고, 체육교사, 양호교사 등 일부만 정보를 알고 있으며 담임교사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가 발생된 후에야 행정실에 문의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있음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 '10. 5. 중 일선교사의 의견)
-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공제회 및 학교차원의 홍보가 보다 적극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학부모의 이해도도 제고하여야 함.
- 운영지침의 현장감 부족
-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현장 교원들이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지침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지침 전달 시기가 늦어 학교 현장 적용에 곤란을 느낀다는 것임.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의 내용 등 지원 가능 관련 공문이 2월 학교 운영 계획서 작성 전에 하달되어야 하나 관련 공

문들이 3월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전환하기 어려움을 토로(미래교육공동체포럼 제5차 전문가 협의회 p교사 의견)

##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 주요 방안의 개요

---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전체의 창의성 교육 신장
  -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 교과활동 및 방과후학교 등 학교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
  - 사교육 및 학교 밖 교육활동의 공교육 제도권 수렴
  -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역량을 최대한 활용
  -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교
- 

### □ 정책의 주요 방향

---

#### 방안1. 학교 전체의 창의성 교육 신장을 위한매개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1-1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창·체 프로그램의 개발 강화
- 1-2 교과 수업과의 연계성 및 통합력 제고 프로그램 활성화
- 1-3 방과후학교와 창·체 활동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운영 활성화

#### 방안2. 학교, 교사 및 학생의 자율 공간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2-1 학교의 자율적 특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2-2 교사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보장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 2-3 학생의 자율성을 함양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 

<표 계속 >

---

**방안3.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체계 구축**

- 3-1 학교 밖 이동성 및 안전성 제고 지원
  - ① 학교 밖 원거리 이동시 차량 지원 시스템 구축
  - ②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의 지원
- 3-2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 ① 수업시수 운영의 재량권 강화
  - ② 행정절차의 간소화
  - ③ 인력풀 확장 및 예산 지원

**방안4. 단위학교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 창·체 활동의 내실화**

- 4-1 단위학교 지원 컨설팅단 운영
- 4-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4-3 다양한 콘텐츠의 연수교재 개발 및 질 제고

**방안5.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가버넌스 구축**

- 5-1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 5-2 학교 교육활동의 개방과 외부 자원 활용도 제고
  - ① 외부 인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②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연계성 제고
- 5-3 자원 빈곤 지역의 자원 활용 극대화

**방안6. 창의적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 6-1 정보인프라의 확충
    - ① 접근 가능한 자원 목록의 체계적이고 풍부한 제공
    - ② 프로그램화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6-2 수요자 입장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① 원-스톱(one-stop) 지원 체제 마련
    - ② 자원목록 DB에 대한 피드백 구조 마련
-

## 방안 1. 학교 전체의 창의성 교육 신장을 위한 매개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1-1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창·체 프로그램의 개발 강화

- 창·체 활동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에 머물지 않고 창의성 교육을 지향하는 활동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제 행하고,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과정으로서 학생 개개인이 신체적, 감성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에 그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의 더 큰 중요성은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의 도입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창·체 영역에서 창의성 및 공동체성이 구현되면 학교의 교과 활동도 창의성 및 인성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음.
  - 따라서, 창·체 영역에서의 창의성 및 인성 교육 목표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피드백하여야 함.

### 1-2 교과 수업과의 연계성 및 통합력 제고 프로그램 활성화

-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물리적·병

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매개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정규교과과정 및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함.

- 예를 들어, 특정 교과시간에 실험·실습 등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면 해당 교과 시간의 일부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교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창의성 교육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사 례** 영화 활용 교육을 통한 교과-창·체 연계 운영

○ 대구 운암초는 영화 활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국어과목을 비롯한 교과 시간에 수업을 전개하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영화 제작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음. 특별활동의 계발부서로 캐릭터 그리기부, 디지털 카메라부등과 같은 영화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등 교과 및 창·체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교내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음.

출처: 교과역역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사례집(2010) p.19

- 창·체 프로그램은 학교 안과 교실 안에서도 실험, 실습, 토론 등 실천 활동이 다양하게 가능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됨.
- ‘창·체 활동 = 학교 밖 활동’이라는 사고 틀이 지나쳐 학교 안의 활동조차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학교 안 창·체 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도서관 연계 활동 등 교내에서 창·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함.



1-3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운영 활성화

- 방과후 학교 활동과 창·체 활동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내용 및 시간 운영 측면에서 방과후 학교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장하여 학교의 전체 교육활동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방과후 및 주말, 방학 등 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규 교과 및 창·체 활동, 방과후 학교의 연계 및 통합적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창의성 및 체험적 접근을 활성화 함.

**방안 2. 학교, 교사 및 학생의 자율 공간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1 ‘학교’의 자율적 특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단위학교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이 보장되어 창·체 활동 본연의 자율적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체 활동 영역은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아우르고 교과 수업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하며, 주중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확장·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임.
- 따라서, 창·체 활동 영역이 갖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이 발현되어 자율적 공간으로서 창·체 영역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함.

- 그러므로 단위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며, 교과부 등 상급 기관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과 안내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규제적이지는 않은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2 교사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보장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 창·체 활동이 교과 수업 및 방과후학교 활동과 통합·연계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 운영 자율권과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함.
-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대하며 행정적 측면에서 관리자들과 많은 마찰이 빚어지게 됨.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작업과 더불어 수업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
- 창·체 활동 담당 교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결재 절차 없이 창·체 담당 교사가 외부 기관과 연결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결재 혹은 구두 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또한 외부 활동 시 발생하는 결손은 토요일이나 다른 시간에 보강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됨.

### 2-3 학생의 자율성을 함양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동아리·진로·봉사 활동 각 영역의 학생 주도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동아리 활동의 경우, 기존에는 교사가 부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였다면 이제 학생들이 제안하고(자율활동)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대내외로 발표회를 열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돕고(봉사활동), 진로결정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진로활동) 지도·조언하여 창·체 활동의 통합적 의의를 살리도록 함.
  -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가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 자율활동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임.

#### 사 례 학생 주도적 '과제 연구' 프로젝트

- 인제 신남중·고는 학생들의 개인적 관심이나,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세부 영역을 심층 탐구하는 '과제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음. '과제 연구' 활동 부서는 창·체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4개 하위 영역을 '과제연구'로 계획 운영하며, 부서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학생들은 자발적인 체험 및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진로 탐색으로까지 발전하였음.

출처: 교과역역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사례집(2010). p.85

### 방안 3.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체계 구축

#### 3-1 학교 밖 이동성 및 안전성 제고 지원

- 학교 밖 원거리 이동시 차량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밖 원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비단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과활동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음. 점차 학급 단위의 이동이 빈번해지는 만큼 학생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의 관내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고 학교 간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의 학교 밖 교육활동 수요를 파악하여 이동을 위한 공동 차량을 학교별로 지원
-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의 지원
  -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활동의 범위가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제2조의 4, 가)으로 규정되어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각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의)책임 범위와 보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김윤정, 2010).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재해와는 차별화하여 모든 산

#### 4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쉽게 보상청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보험 가입 및 청구의 간소화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보험회사나 안전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 함.

- 학교 안전공제제도 및 안전성 문제의 절차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3-2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 ○ 수업시수 운영의 재량권 강화

- 학교 밖 창·체 활동이 주중 수업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이동에 따른 시간 손실 문제가 발생함
-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교육 활동을 위한 이동 중 발생하는 수업시수를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학교장 재량에 의해 일정 정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 수학여행의 경우 연간 시간 배당 계획에 따라 교육 과정 내에서 관련 교과에서 추출한 수업시수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 인정하고 있음.

- 수업 시간표 구성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창·체 활동의 최소 시수 범위 내에서 휴일이나 방학 중 수업도 시수로 인정함.

##### ○ 행정 절차의 간소화

- 외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의 계획과 행정 업무를 외부 기관이 모두 처리

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이를 준용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활동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외부 기관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필요와 교육적 요구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교과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 기관과 학교 간 MOU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CRM 등에 등록된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관을 활용해 학교가 따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박은주, 2010).

○ 인력풀 확장 및 예산 지원

- 문화예술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보조교사, 인턴교사 등 학교에 기배치된 다양한 인력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
- 학부모 및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 밖 외부 활동 시 안전요원 혹은 프로그램 보조인력으로 활용
- 인턴교사(2011년, 10,000명)의 편성 시 창·체 활동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행정 인턴도 별도 배치함.
- 학교 예산(수용비) 편성 시 창·체 활동과 관련된 활동 경비의 지출 비용이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방안 4. 단위학교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 창·체 활동의 내실화

### 4-1 단위학교 지원 컨설팅단 운영

-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로서 컨설팅 운영
  - 창의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 않음.
  - 창·체 활동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사례에 맞는 구체적 컨설팅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전국 단위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도교육청 지역 단위에서도 학교 순회 컨설팅단을 운영
  - 컨설팅단에 의한 학교별 컨설팅 경험을 사례로 정리하고 일반화하여 학교에 보급

#### 사 례 인천광역시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 지원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학교 및 연구학교 등 찾아가는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의 요청이 접수되면 컨설팅단 사전 협의회를 통해 기초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4-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학교 현장에서 창·체 활동은 업무를 담당하는 1~2명의 교사가 배타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며, 전체 교사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함.
  - 학교 전체의 창·체 활동 운영의 기획 및 편성을 담당하는 업무, 하위 영역별 지도활동 및 지원활동, 하위 영역 간 연계·통합, 교과 및 방과후 활동과의 연계·통합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됨.
  - 학교 전체 교원의 창·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전문성이 전제될 때 학교의 창·체 활동은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
  - 업무 영역별, 활동 영역별, 지원 범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체계화 하여야 함.

#### 4-3 다양한 콘텐츠의 연수교재 개발 및 질 제고

- 다양한 콘텐츠의 연수교재 개발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은 매우 저조한 형편임.
  - 초등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1, 2학년에만 부분 적용되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한 정보 및 인식이 부족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맞물려 창·체 활동이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진행됨.



- 교사들의 이해 부족과 수동적인 자세는 창·체 운영에 많은 제약 줄 수 있는 만큼, 학교현장에 대한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연수교재를 개발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연수 실시 및 연수의 질 제고가 필요함.

○ 연수를 통한 전달력 강화

- 교원 연수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주어지는 전달형 연수 위주를 벗어나, 연수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의 실무형 연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연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 또는 기법과 아울러 창·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며,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연수를 강화함.

**방안 5.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가버넌스 구축**

5-1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 시군구 단위의 지역협의체 구성

-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서 단위학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협의체는 시·도 단위보다는 시군구 단위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
- 전직교사, 대학생, 학부모, 현직자 및 퇴직자 등의 지역사회 자

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인력풀을 운영하며, 지역협의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

**사 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체 운영

- 공주 우성초는 국립공주박물관 자원봉사회, 공주시지회 노인대학, 곰두리 봉사단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강사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주)의 역사적 유물 및 유적을 활용하여 ‘백제문화 홍보 대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음.

출처: 교과역역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사례집(2010). p.45

5-2 학교 교육활동의 개방과 외부 자원 활용도 제고

- 외부 인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교내 체험활동 참여를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예컨대 기업체가 학교 발전기금을 제공한 경우 세금 감면혜택을 주듯이 외부 인사 혹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경우 세금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가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 안전공제제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함.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연계성 제고
  -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교육기부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기업·공공기관·정부 부처 등이 보유한 각종 물적·인적자원과의 연계가 중요함.

5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부 및 교육청 단위의 MOU 체결 등 사회적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교 단위에서도 지역자원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역 단위의 기업, 기관, 시설, 단체 등으로부터 교육기부가 이루어질 경우 인증마크 발급 등 사회적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기부가 단순한 금품 및 물품 지원을 넘어서서 학교 상황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심층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함.

**사 례** 부산광역시 'UP 스쿨' 운동

- 2007년부터 시작된 부산교육청의 'UP 스쿨' 결연운동은 그 동안 24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월말 현재 5,783개의 기업·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775억원의 지원금을 유치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복지 향상 등에 지원하고 있음. 기업체·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UP 스쿨' 결연운동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사 례** 도요타 자동차의 “놀라운 과학 상자 수업” (1996년 ~ )

- 도요타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사내의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도요타 기술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전국의 과학관·박물관 등에서 “놀라운 과학 상자 수업”이라는 과학 공작 교실을 운영함.
- 아이들에게 “물건 만들기의 중요함”과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과학기술의 흥미와 꿈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전력 회생 자동차, 2족 보행형 로봇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의 창의 연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함. 지금까지 10년간 약 200회의 수업을 개최하여 약 16,5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참가함.

출처: 김윤정(2010). 창의 인재 양성과 교육기부,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 지속가능경영포털.  
<http://csr-korea.net/Kor/Service/Main/appl/Main.asp>

### 5-3 자원 빈곤 지역의 자원 활용 극대화

- 농어촌 등 자원빈곤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 여가 및 학습 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및 관련 시설이 부족하므로,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농어촌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연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목록화하고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

#### 사 례 지리적 환경을 이용한 창·체 운영

- 삼척 장호중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어촌의 빈곤한 문화적 자원을 극복하고 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연건 및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해양 관련 교과 활동 및 다양한 해양 체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특색있는 교육 활동을 실천하였음.

출처: 교과역역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사례집(2010). p.101

- 도시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의 결연 등을 통하여 도·농간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의 도시지역 자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도시지역의 농어촌 자원 접근성도 제고
-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군을 형성하여 다양한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함.

**사 례** 명사초, 외간초 DATE 수업

- 명사초와 외간초는 D(Discussion learnig, 대화학습), A(Art's and Physical learnig, 예체능 학습), T(Team-based learnig, 과제학습), E(Experietial learnig, 체험학습)를 핵심으로 두 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방안 6. 창의적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 6-1 정보인프라의 확충

- 접근 가능한 자원 목록의 체계적이고 풍부한 제공
  -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실천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바깥의 체험 가능한 자원 연계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외부 연계 노하우 및 경험 축적이 부족한 단위학교의 외부 자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임.
  - 현재 이를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로서 창의·인성교육넷이 구축되어 있고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 자원의 유형별, 프로그램 주제별, 대상별, 운영시기별 분류가 이루어져 있음.
  - 그러나 탑재되어 있는 지역자원 목록이 부족하고 활용 자원의 분류 및 프로그램 분류가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며, 탑재된 자료도 단순한 정보의 집합 혹은 나열식인 경우가 많아 활

용도가 높지 않음. 자원 탑재의 가속화 및 자료 활용의 심층화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향후 자료의 활용도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원목록화가 이루어져야 함.

○ 프로그램화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지역자원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이에 접근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 운영방법별 등 다양하게 분류된 여러 종류의 활용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함.

6-2 수요자 입장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원-스톱(one-stop) 지원 체제 마련

- 교과부의 창의인성교육넷(crezone, CRM),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통합정보사이트(YRM),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M),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careernet), 한국고용정보원의 청소년워크넷(youth-worknet) 등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자원목록지도를 학생·교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수요자 입장에서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 DB의 사용자 환경을 구조화하여야 함.

5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자원목록 DB에 대한 피드백 구조 마련
  - 창의적 체험활동 모범 실천 사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창·체 활동과 관련된 연간 활동 내용 및 시수 등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창의·인성교육넷(CREZONE)과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학교에서 실제 활용 시 문제점이 빠르게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학생·교사 등 수요자가 활용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평가, 장·단점, 특성, 기대되는 결과, 활용상의 유의점 등 소감 및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영혜(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외(2010). 미래 인천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방향, 2010 인천교육 심포지움.
- 교육과학기술부(2010).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고등학교 매뉴얼)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전체 회의(2009. 8. 17) 채택 보고서.
- 김경애(2010).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실천방안, 제5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외(2011). 교과영역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사례집, 미래교육공동체포럼 현장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2010).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 방안,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영진(201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국 워크숍,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교육청.
- 김왕동(2009).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 과제,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윤배(201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대전광역시교육청),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한



국교육개발원.

김윤정(2010).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의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 고찰”.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대전광역시교육청),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_\_\_\_\_ (2010). 창의 인재 양성과 교육기부,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 지속가능경영포털.

김현청(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은주(2010).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박제윤(2010).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산광역시교육청(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자 워크숍, 부산광역시교육청.

\_\_\_\_\_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고등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0). 더불어 사는 삶, 미래는 여는 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이경언(2010).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광우(2010).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시론. 교과서연구, 제1권 59호. 교과서연구재단.

\_\_\_\_\_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

동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정표(2010). “인문계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임지연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IV: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주요업무보고. 2010. 12. 14

홍후조(2008). 「학교시간운영의 효율화와 이수과목수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6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_\_\_\_\_ (2008). 학생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 제3장

#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강화 방안

제1절 왜 직업세계 이해교육인가?

제2절 초·중등 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직업세계 이해교육과 관련한 정책  
현황

제4절 직업세계 이해도 증진을 위한 개선  
및 정책 방안



## 제3장 |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강화 방안

### 제1절 왜 직업세계 이해교육인가?

- 직업세계의 이해교육은 학교교육의 본원적 영역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학교교육의 본래적 측면에서 직업세계 이해교육은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화 이전의 소수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소한 교육구조로부터,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 일반 노동계층(working class)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도입됨으로써 직업세계 이해교육은 학교교육의 본원적 역할로 기능함(Johnson, 1976).
  - 학교교육의 목적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므로 학교교육은 지적 역량의 향상과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Lloyd 외, 2003).
  - 학교교육에 있어서 직업세계 이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진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

62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을 주며, 특히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직업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하기 쉬운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인 진로선택의 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직업세계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가 사용하는 국제표준 직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혁명 당시 약 400종에 불과하던 것이 1945년에 1만여 종으로 증가하였고, 1965년에 5만여 종으로 증가하였으며, 1974년에는 20만여 종으로 증가하였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우리나라의 경우 1956년에 이천여 종에 불과하던 직업의 수가 1985년에 10,451종으로 조사되었고, 1995년에 11,537개, 2001년에 12,306개로 크게 증가하였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수많은 직업이 명멸하고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변화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에게 요구됨.
  
- 국내외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에 직업세계 이해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초·중등 단계에서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임.
    - 일본의 ‘커리어 스타트 위크(Career Start Week): 청소년의 직업 이해와 정서 순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5일간의 직장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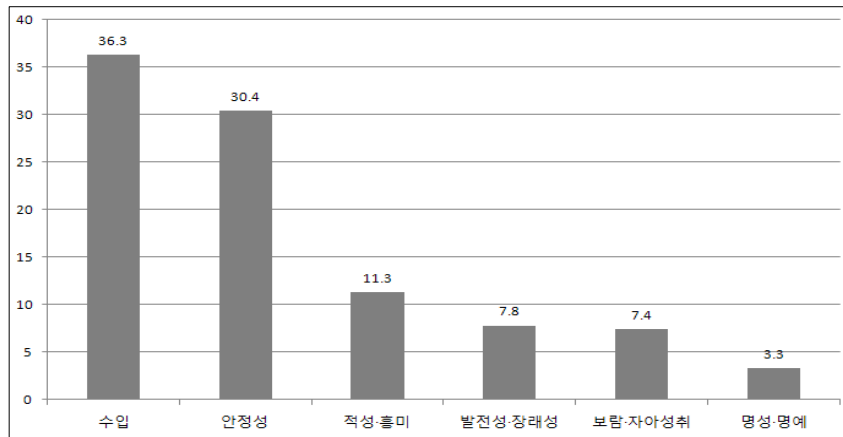
험으로 일본 전체 중학생 중 90.5%, 고등학생 중 57.1%가 참여하고 있음(오다 유카리, 2009).

- 프랑스의 직업세계발견교육: 중4학년에 시행되는 선택과목으로 직업과 조직, 관련된 사회적 이슈(예: 남녀 불평등 등)에 대해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짐(신선미, 2011).
  - 영국의 현장직업체험(Work Experience): 일주일간 진행되는 직업현장에서의 체험으로 중학교단계에서 95%, 고등학교 단계에서 50% 가량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영국 교육부 통계, [www.teachernet.gov.uk](http://www.teachernet.gov.uk)).
  - 아일랜드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 중학교→고등학교 진학 후(고1) 1년 동안 원하는 직업/기관에서 직업체험, 봉사, 회사운영 등을 경험하는 필수 학년 제도. 현재 중학교 4학년 학생 90%이상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09 개정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들고 학교급별로 다음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초등학교: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중 학교: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고등학교: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공교육의 부실한 직업 이해교육은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편견과 왜곡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에서 조사한 주요 직업선택 요인을 보면, 수입과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교 진로·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직업의 발전성이나 자아성취, 적성 및 흥미와 같은 요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 청소년의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직업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와 자아성취 등에 대한 동기 부여가 결여되어 있음.

[그림 3-1] 청소년의 주요 직업선택 요인



원자료: 통계청(2010) 청소년 통계 『사회조사』.

-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있어서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49.9%)’를 선택한 학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6.8%)’이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4.8%)’를 선택한 학생은 소수에 그침.
- 이는 진로교육과 설계에 있어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1〉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단위: %)

응답자의 특성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전체		2.4	49.9	18.4	6.8	4.8	5.1
학교 급별	중학교	2.7	49.6	18.0	7.9	4.9	2.8
	일반계고	1.9	52.4	17.7	4.5	5.0	8.2
	전문계고	2.8	45.5	21.0	8.4	4.3	4.7

원자료: 최인재 (2009). 『한국청소년지표조사 IV』

-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진학 기피현상도 초·중등 단계의 부실한 직업 이해교육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낮은 이해는 성적을 위주로 한 진로설계로 이어짐.
- 통계청에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 청소년의 주요 고민 대상

구분	외 모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정 환경	공부 (성적, 적성)	직업
2006	10.0	4.3	6.0	35.0	29.6
2008	12.7	3.5	5.1	38.5	24.1
2010	12.7	3.7	2.8	38.6	22.9

원자료: 통계청. 청소년 통계. 『사회조사』, 각년도  
 주: 높은 순위의 응답 다섯 가지만 제시.

- 그러나 청소년들은 직업의 선택이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직업에 대한 고민마저도 성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65.9%는 ‘장래 희망직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장래 희망직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 이유로는 ‘성적이 낮아서’(60.0%)가 가장 많음.

〈표 3-3〉 장래 희망직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 이유(복수응답 가능)

이유	응답 비율(%)				
	초등학생	중학생	전문계고	일반계고	전체
성적이 낮아서	50.7	68.6	54.0	65.6	60.0
그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해서	0.0	0.0	50.5	35.8	16.0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11.4	7.1	7.5	11.0	9.2
돈이 많이 드는데 없어서	5.9	5.4	20.2	9.9	9.1

자료: 한고원(2008). 초, 중, 고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주: 높은 순위의 응답 네가지만 제시.

- 고교생들은 진학 시 계열 선택을 ‘특별한 이유 없이’(일반계)했거나, ‘성적’(특성화계)이 주요 이유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학생

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4〉 고교진학시 계열 선택 이유

결정 이유	적성	성적	부모 기대	대학진학	친구	장래희망	이유없음	교사추천
특성화계(%)	15.8	27.7	3.8	14.6	1.0	15.0	17.5	2.1
일반계(%)	4.3	11.1	9.9	15.4	6.1	6.5	40.3	0.0

자료: 한고원(2008). 초, 중, 고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 뚜렷한 직업관 없이 막연히 성적을 중심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성은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잦은 직업 혹은 직장의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음.

〈표 3-5〉 직업 변경 의향 세대 간 비교

구분	직업을 바꾸고 싶음	같은 직업의 다른 직장으로 이동	지금 상태 유지
청년층	40.9	15.4	43.7
장년층	19.3	8.9	71.9
계	25.4	10.7	63.9

자료: 임언(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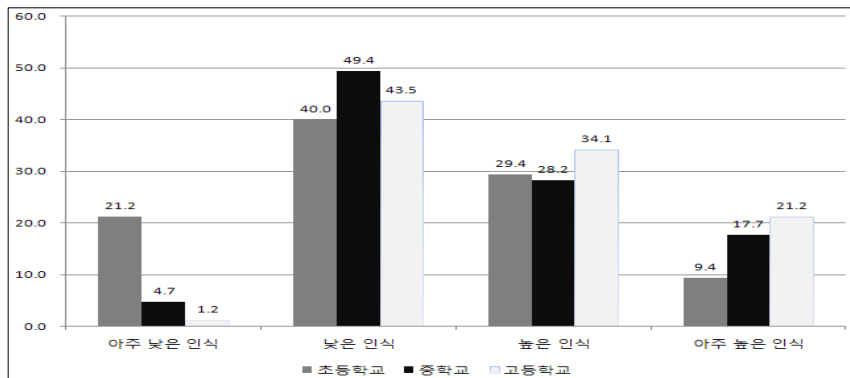
- 잦은 직업(직장)전환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및 이직과 관련된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며, 개인적으로는 경력 단절과 재취업을 위한 비용 낭비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함.

## 제2절 초·중등 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 및 문제점

### □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은 직업 선택의 제한으로 작용함.
- 초·중등 학생의 경우, 빈도가 높은 총 170개의 직업 중 취득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직업 수는 각각 16개(9.4%), 30개(17.65%), 36개(21.05%), 62개(36.47%)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김장희 외, 2009).

[그림 3-2] 학교급별 4척 척도에 따른 직업 인식 수준



원자료: 김장희 외(2009).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분석.

주: 아주 낮은 인식: 처음 보는 직업이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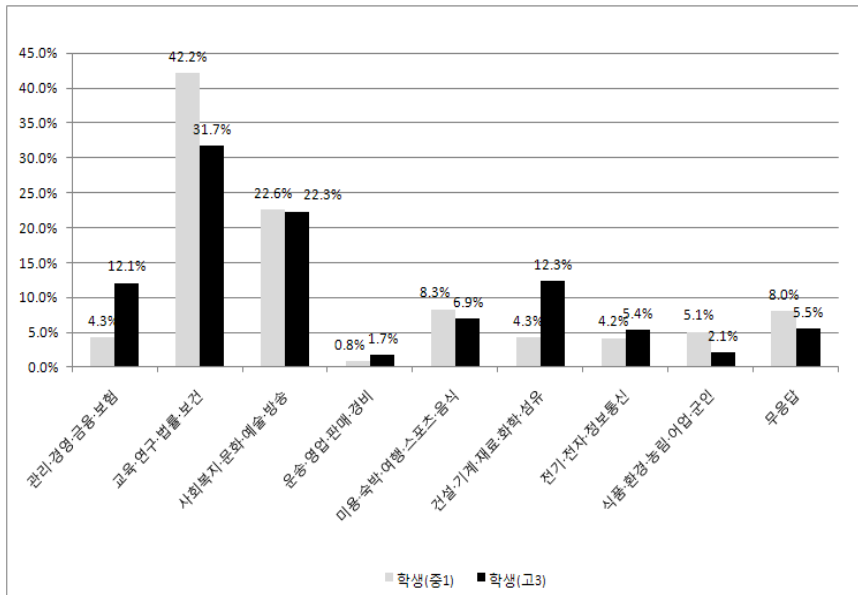
낮은 인식: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전혀 모름.

높은 인식: 직업의 이름과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 직업을 가질 방법을 모름.

아주 높은 인식: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알고, 그 직업을 갖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음.

- 청소년이 희망하는 장래 직업은 직업사전의 대분류로 볼 때, 고용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교육·연구·법률·보건 분야 등에 집중되고 있음(중1: 42.2%, 고3: 31.7%). 고용비중이 4.1% 정도에 불과한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 등에도 22.6%(중1), 22.3%(고3)로 집중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3] 중1/고3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



원자료: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진로 직업 실태 조사.

- 학생들의 목표 직업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추구형 직종을 우선시하는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가치 판단이 전달되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전업형 혹은 생계형으로서 교육적 차원과는 다소 동떨어지고 있음.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경험이 한정적이며,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최인재, 2009).
- 우리나라와 영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율에 있어서 영국이 50.5%로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11.7%에 불과했음(<표 3-6> 참조).
-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업종은 단순노동직(예: 전단지 돌리기)과接客업(음식점 점원)이 많았으며, 판매업(가게 점원)과 비서/행정업무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매우 일천하며 업종도 단순 노동직이나接客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치우치고 있어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 3-6〉 한국과 영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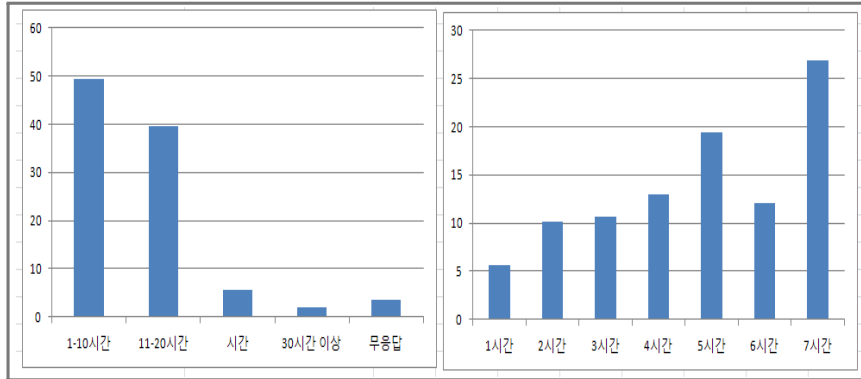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율	아르바이트 업종				
		단순노동직	接客업	판매업	비서 및 행정업무	기타
한국	11.7%	40.6%	32.0%	6.6%	0.7%	19.5%
영국	50.5%	26%	20%	46%	4%	4%

원자료: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Payne, J. (2001). Post-16 Students and part-time jobs: Patterns and effects.

- 일하는 시간에 있어서 영국 청소년들이 주당 10시간 내외의 근로가 대부분인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하루에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임.

[그림 3-4] 영국 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그림 3-5] 한국 청소년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



원자료: Payne, J. (2001). Post-16 Students and part-time jobs: Patterns and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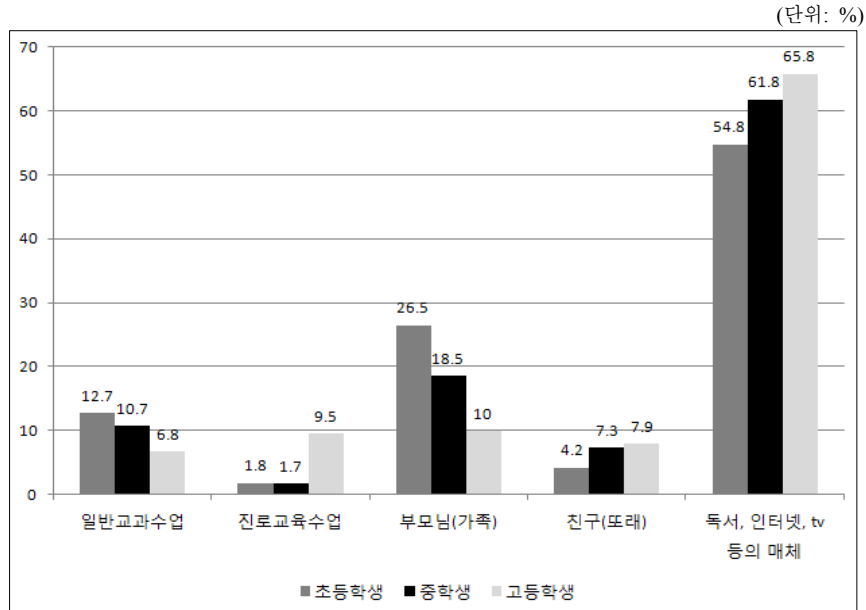
원자료: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 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과 문제점

- 학교가 제공하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청소년이 학교를 통해서 얻는 직업세계의 정보는 인터넷, TV 등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는 정보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짐.
-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교과서도 언급된 직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왜곡된 직업관을 낳고 있음.
  -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과 관련이 높은 ‘사회’ 교과목의 교과서에서 직업이 언급된 횟수는 총 65회로, 직업 종류는 총 22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법관이 12회, 변호사·검사·대통령이 각각 6회 등 특정 동일 직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음.



[그림 3-6] 초·중·고등학생의 직업정보 취득 방법



원자료: 김장희 외(2009).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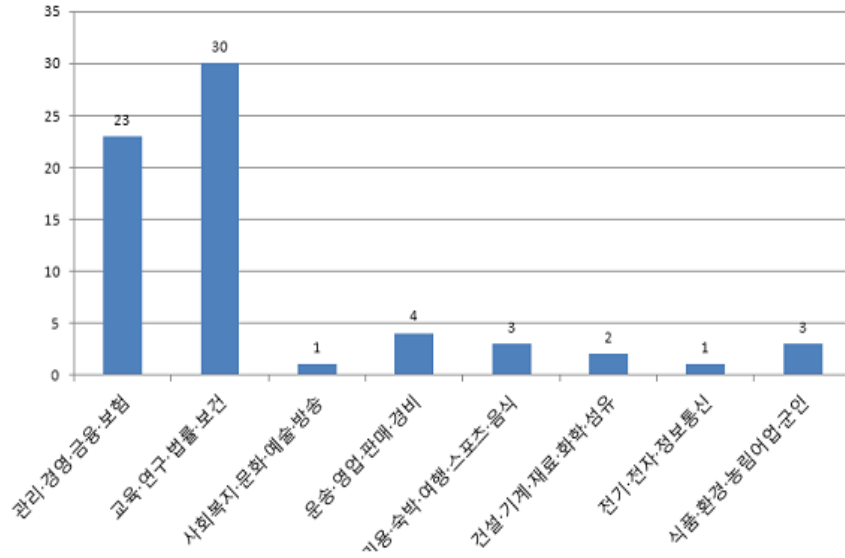
<표 3-7>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에 언급된 직업의 횟수와 종류

언급횟수	12회	6회	3회	2회	1회
직업종류	법관	대통령,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 공무원, 경찰, 농부	장관, 과학자, 자동차판매원, 외환딜러, 보험설계사, 가정부, 축구선수	교사, 연예인, 기술자, 프로그래머, 재단사, 반도체 기술자

주: 7 출판사에서 출판된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중1, 중3, 고교용 3종)를 모니터한 결과임.

-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을 직업사전의 대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그림 3-7]과 같이 매우 편향된 직업 영역만을 치우치게 보여주고 있음.

[그림 3-7]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 언급되는 직업의 종류와 빈도수



- 학교를 통한 직업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직업 탐색 및 학습의 동기 부여가 취약함.
    - 다양한 직업체험의 경험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로 이어질 수 있음(예: 안의고등학교 사례-창의적 체험활동 실천사례집(2011).p. 156 참조)
    -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직업체험이 한정적이고 체험 공간이 부족함.
- ※ 2006 PISA를 이용한 OECD 국가진로교육실태 비교분석에서, 학교의 산업체훈련경험제공은 핀란드(95.6%), 영국(84.7%), 덴마크(87.1%)에 비해 한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임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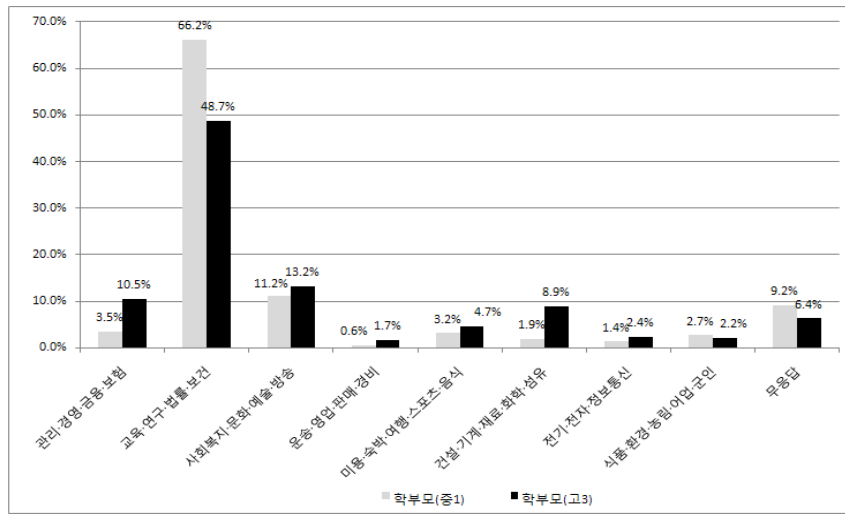
- 학교에서 시행되는 직업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직업 관련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88%)이었고, 직업인 초청 특강(61.1%), 직업현장 견학(49.5%), 프로그램 참가(39.2%), 진로 및 직업박람회 참석(38.3%) 등 순이었음(정연순, 2010).
- 이나마 학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짧은 직업체험 시간(28.0%), 지루함(24.6%), 직장에서의 체험 활동 부족(17.6%)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한상근 외, 2007).
-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직업체험 교육을 하는 학교의 비율은 25.7%로서,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의 36.3%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각각 23.7%와 16.3%의 학교만이 정기적인 직업체험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정연순, 2010).

□ 학부모 및 교사의 직업이해 현황과 문제점

-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망 직업은 자녀들의 희망 직업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한정적임.
-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희망 직업은 ‘졸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직업사전 대분류로 교육·연구·법률·보건 영역이 중1 학부모의 경우 66.2%(고3은 48.7%)에 이르고 있음. 이는 같은 영역의 중1 학생들이 바라는 42.2%(고3은 31.7%)보다 20%가 높은 수치로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의 보수적인 직업관은 학생의 직업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3-8] 중1/고3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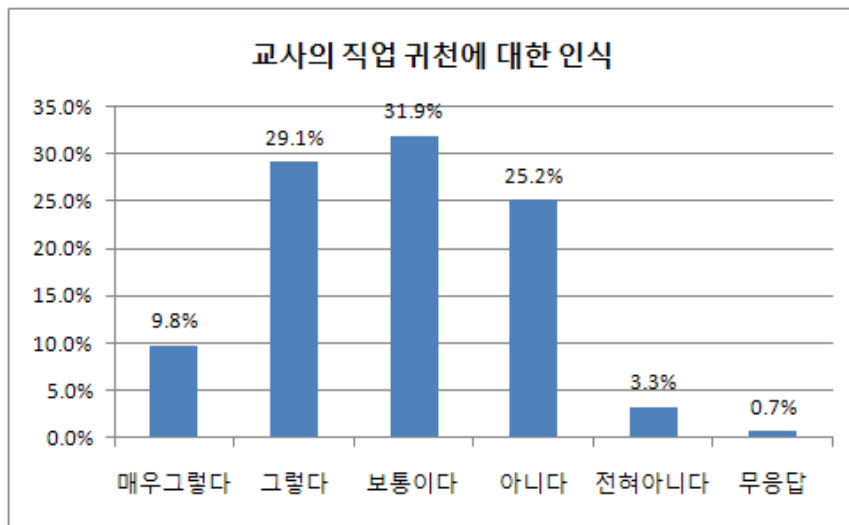


원자료: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진로 직업 실태 조사.

○ 교사들의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38.9%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28.5% 밖에 되지 않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직업인이 교사임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학생의 직업관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3-9] 교사의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원자료: 맹영임(2006).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제3절 직업세계 이해교육과 관련한 정책 현황

#### □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세계 이해 교육 관련 정책

- 중·고등학생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탐색 기회 제공 확대
  -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1·고1 학생들의 진로체험 확대 제공('10년, 10% → '11년, 20% → '12년, 30%)

※ 사례: 소방방재청-화재 진화 체험 등('09년 39만명), 경찰청-과학수사요원 체험 등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연수원, 과학연구원, 도서관, 단위학교 등)부터 개방하여 자녀를 위한 탐방의 날 실시 유도
- 시도교육청별 진로코디네이터(도우미) 선발 활용(19억원)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상시 지원 및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의 정보 제공

○ 교육기부 활성화 및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및 인증마크

- 교육기부기업협의회(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대한상의와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10년 8월)
  - ※ 한국항공우주산업(Aviation Camp), 에스원(심폐소생술 체험), 한국남부발전(에너지 체험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혹은 운영 예정
  - ※ 대한상의 협약과는 별도로, CJ(제과·제빵), GM대우(자동차 캠프) 등 많은 기업에서 교육기부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 활발히 진행 중
- '교육기부운동' 확산 및 체험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도입하고(10. 10월~), 해당기관에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DE마크)를 부여

○ '진로의 달' 지정 및 활성화

- 기존의 '직업세계체험주간'(07년 지정)을 '진로의 달'로 변경. 명칭 변경과 함께 '주간'이 아닌 월(月)단위 운영방식 도입
- 5월에 '진로의 달'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청 및

78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학교 상황에 맞게 방학 전(예: 7월, 12월)기간, 혹은 시험 후(예: 4월, 10월) 기간 등에 자율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유도

- 학교 내 체험형 경제교육 강화
  - 경제지식 위주보다는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 및 실습에 중점 둔 체험형 수업(시장보기, 은행융자 등) 권장
  - 초·중학교(공통교육)과정부터 경제교육 강화
  - 중3+고1” 경제 수업시간을 41시간까지 확대
  
-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영역 배정
  - 교과 및 특별활동의 다른 영역(자율·봉사·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창의적 재량활동의 진로활동 17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수가 배정됨.
    - ※ 특별활동-진로활동: 16시간 배정, 창의적 재량활동-진로활동: 17시간 배정(7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34시간을 1/2 시수를 감축함, 현재 범교과학습, 진로활동은 각각 17시간씩 배정됨)
  
- 직업에 대한 반편견 교육 강화 및 직업 차별의식 해소
  - 학생들이 되고 싶은 꿈과 이해해야 되는 직업,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직업에 대한 구분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와 아울러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 해소
    - ※ 교육과정기획과의 교과 교육과정 개정 T/F(2010) 작업과 연계

□ 시·도 교육청의 직업세계 이해 교육 관련 정책

○ 서울교육청

- 생애 전환기 진로교육 특별 프로그램 ‘꿈 희망 직업 축제’ 운영
  - ※ 초6,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보와 미래의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 지원
  - ※ 100개의 직업 전시관, 청년벤처 사업가들과의 만남, 새로운 직업 세계를 알려주는 소강연과 Q&A, 장터에서 만나는 천개의 직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커리어 데이’ 오픈(11년 4월~)
  - ※ 한 달에 한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문 분야의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특강과 실제 체험으로 구성
- 서울시 교육청의 인문계 학생 중 직업과정 이수자 현황
  - ※ 2,780명('06)/ 2,434명('07)/ 3,071('08년)/ 3,228명('09년)/ 3,682명('10년)/ 3,322명('11년)

○ 부산교육청

- 유형별 맞춤형 진로체험 실시
  - ※ 기업, 전문대, 교과, 문화예술 등과 연계하여 교육청에서 개발한 123가지 유형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중고교 진로 동아리(각 50개, 20개, 약 1,000여명) 지원
  - ※ 전문대, 인력개발원 등의 유관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직업세계의 이해교육과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시키고자 함.
  - ※ 진로동아리 운영, 동아리 캠프, 꿈노트 작성, 학생 중심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남교육청 (해외 인턴십을 통한 직업·진로 교육)
  - 글로벌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기능인 우대 선진국에서 현지 취업교육기관 활용 및 연계 교육을 지원하여 해외 취업 우수 사례를 통한 특성화고 학생을 유치하고자 함.
  - 특성화고 학생 대상 40명 파견(11년 4월, 1차)하여 관광, 원예, 요리, 미용, 항공, 해양 등에 관한 선진 기술체험을 하도록 함.

□ 타 부처의 직업세계 이해 교육 관련 정책

가. 고용노동부

- 잡스쿨(job school) 운영
  - 중·고등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선택을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직업특강, 대학전공 체험, 성공한 직업인 초청강의, 기업체 견학 및 현장체험 등이 제공
-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나 협회와 공동으로 『행복일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10년 12월)

---

<협약참여 기업·협회(10개)>

GS25, 웨미리마트(보광),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주)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유), 비알코리아(주)(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한국도미노피자(주), 버거킹, KFC, (주)아르바이트천국

---

-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73개 팀 306명이 응모한 가운데, 20개 팀(87명)을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로 선발하여 교·내외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
- 12개 산업의 직업변천 현황 등의 정보를 수록한 <2011 산업별 한국직업사전> 발간
  - <통합 한국직업사전>이 발간된 2003년 이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12개 산업 분야에서 기술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생직업은 21개, 소멸직업은 5개
-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및 직업체험관련 수련시설 설치·운영(’12년 초 개관 예정)
  - 직업세계관, 청소년체험관(43개체험실, 66개 직업), 어린이체험관(37개체험실, 44개 직업) 및 진로설계관 구성 예정

#### 나. 지식경제부

-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캠프
  - 이공계 지원자의 급감현상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산업기술 마인드 확산을 통해 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
  - 초등학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기술본부 견학, 재활용품을 이용한 아이디어 제품 제작, 컴퓨터 그래픽 강연을 통한 영화 산업 이해

- 중·고등학생: 대덕연구단지 시찰(한국기계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을 방문)을 통한 산업 현장 체험
- ※ 2009년: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83명, 고등학생 119명 참가

#### 다. 중소기업청

- ‘비즈쿨(Bizcool)’ 운영(2002년~현재)
  -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계 고교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함.
- 청소년 CEO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프로그램’ 도입·운영(11년 3월)
  -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창업영재로 구성된 45개의 팀을 전국에서 발굴하여 법인설립, 운영, 연수 및 법인청산까지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4월 공고를 거쳐 45개의 팀을 선발, 12월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창업영재를 집중 육성

#### 라. 여성가족부

-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 확대(상설 10, 시범 20개소)
  -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설정,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등 지도
  - ※ 수혜청소년: 1,000명(09년)→10,000명(10년)

※ '13년까지 취약·위기 청소년 4만 명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 중 5천명을 실질적인 사회진출로 연계

- 폐광지역(도계) 청소년들의 해외테마(직업체험) 활동(10. 8. 16~20)
  - 친환경산업체와 관광산업체 견학을 통한 직업체험활동과 국립다테야마청소년 자연의집에서 청소년교류 및 수련활동에 참여함.

□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표 3-8〉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부문	기관명	프로그램명
공공	금융감독원	어린이·청소년금융교실 및 사회복지시설방문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백일장,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거래소 견학 교육, 청소년 증권교실, 증권박물관 체험
	한국은행	온라인 경제교육, 청소년 경제강좌, 청소년 경제캠프, 한국은행 방문강좌, 통화정책 경시대회, 화폐박물관
	KDI	교과서 공부방, 청소년 시장경제교실
비영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주말 어린이 금융·경제 교실, 출장교육, 여름방학 어린이 산업 현장 방문 체험 교육,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금융현장 체험학습, 도서벽지학교 금융·경제책 보내기
	JA 코리아	ja 초·중·고·대학교 프로그램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증권업 협회)	현장방문프로그램, 금융투자 캠프, 놀토 금융투자교실, 증권경시대회, 온라인 강좌
	대한상공회의소	어린이 회장단 경제교육, Hi 경제 온라인 교육
	초등경제교육연구소	경제교실, 다문화 경제교육
	YWCA-한국시티은행	씽크머니, 방과후 학교&금융체험캠프

<표 계속>

부문	기관명	프로그램명
언론	이데일리	이코비 경제캠프, 경제백일장
	중앙일보	틴틴경제교실
	매일경제	매경 주니어 MBA
	한경닷컴	온라인 강좌
	어린이경제신문	교과서경제탐험대, 경제캠프
금융	삼성증권	청소년경제증권교실, 청소년증권체험교실
	하나시티어린이경제세상 (직업교육도 함)	하나시티
	우리투자증권	옥도주니어경제캠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교보생명	엄마와 함께하는 경제교실
	동양증권	자녀사랑 경제캠프

## 제4절 직업세계 이해도 증진을 위한 개선 및 정책 방안

### □ 주요 방향

- 초중등단계 직업이해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산
-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 강화를 통한 직업에 대한 편견 해소
- 학교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을 통한 직업세계의 이해 증진
- 전체 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직업 이해교육 수행
- 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및 직업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 주요 방안의 개요

---

### 방안1. 초·중등 단계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산

- 1-1 초·중등 단계 직업 이해교육의 전면적 도입
- 1-2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 전환
- 1-3 직업 이해교육 확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여건 조성

### 방안2. 학교 교육활동의 직업 이해교육 강화

- 2-1 직업이해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강화
- 2-2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 2-3 창의적 체험활동의 직업 이해 프로그램 강화

### 방안3.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전문성 강화

- 3-1 교원 및 학부모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 3-2 단위학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 3-3 교육청의 관련 전문성 강화

### 방안4.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4-1 정부부처별 협력체계 활성화
  - 4-2 학교와 외부자원의 협력체계 강화
  - 4-3 외부자원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
-

## 방안 1. 초·중등 단계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산

### 1-1 초·중등 단계 직업 이해교육의 전면적 도입

- 초·중등 단계 직업 이해교육 강화는 세계적 추세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직장체험 활동, 영국의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등 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프랑스의 직업발견교육과 같은 직업 이해교육의 강화는 전 세계적 인 추세라 할 수 있음(p. 62 참고).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우리나라도 직업세계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활동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위학교 차원의 직업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직업세계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단위의 직업체험활동을 강화해야 함.
  
  -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매년 5월 ‘직업세계 체험주간’(교육과학기술부 주관)에 참여 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
    - 직업세계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수업 이수 또는 봉사 활동 실적 으로 인정
- ※ 주요 사례: 주말버스학교(경기도), Career Start Week(5일, 일본), 일터로 자녀 데려가는 날(미국), 전환학년 제도(아일랜드), Job Shadowing 프로그램(미국), Daughters 프로그램(영국), Occupational Work Experience 프로그램(미국) 등

- 학생들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직자의 지도하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직종별 협회 및 단체, 개별 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 주체를 육성하며, 지역 고용지원센터, 민간 직업체험시설 등을 적극 활용
- 학교급별 직업 이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 학생의 직업 이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직업 이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 단계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하며, 과목별로 교과서 등에 소개되는 직업세계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각 교과 및 단원과 관련한 직업 및 에피소드, 일화, 성공 직업인 사례 등을 교과용 도서 개발 시 일정 비율로 구성하도록 함.
  -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직업이 특정 직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직업이 소개될 수 있도록 유도
  - 각 교과에 직업관련 소개 및 직업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교사가 담당과목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과용 도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함.

**사 례** 미국의 초등 과학 교과서

- 미국의 초등 과학 교과서인 Florida Science Fusion(Houghton Mifflin Harcourt 출판, 2012 최신판) 경우, People in Science, Careers in Science, Think Science의 코너를 통해 유명한 과학자나 발명가, 과학과 관련된 직업,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과학 등의 추가적인 과학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음.



### 1-2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 전환

- 직업세계 이해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강화
  - 청소년의 직업세계 이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이해 노력 및 인식전환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과정에 직업세계의 이해교육을 강화
  - 이후, 직업 이해교육활동에 근접한 기술·가정, 사회 등 교과 교사의 직업 이해교육 연수를 강화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등으로 연수를 순차적으로 확대
  
- 교사 양성과정에서 직업 이해교육 강화
  - 교사는 학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직업인이므로 학생의 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 교사의 직업관을 정립해야 함.
  - 교사 양성과정에 직업 이해교육 과목을 포함하고, 담당 교과과목과 연관된 직업군과 산업분야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 교사 임용 후, 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 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의 직업세계 이해 심화 및 직업관 정립
  -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직업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부

모의 직업세계 이해 및 직업관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

- 학생 직업 체험이나 창업 교육에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직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직업 이해 및 창업 과정을 체험
- 직업에 대한 편견을 주제로 자녀들이 작성한 백일장이나 포스터 등의 작품 감상, 관련 분야 응변대회 참여 등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공유 기회 제공

### 1-3 직업 이해교육 확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여건 조성

- 직업세계 이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직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참여를 통해 직업 이해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 예를 들어, 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 문화부는 문화예술 부문의 직업 영역을 소개 등.
  -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직업세계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직업 분야 노출 및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가치 홍보
  - 대중매체에 다양한 직업 분야를 노출시키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분야 외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례 등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분야 개척의 가치 홍보

- 진학자 우선에서 취업자 우선의 사회 분위기 형성
  - 대학 재학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입영연기 제도 등 진학자를 배려하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취업자 우선으로 개선
    - ※ 현재 병무청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계고 졸업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국무총리실(2010.10). ‘학력차별 개선방안’).
  - 직업세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직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진학 경로를 확산

## 방안 2. 학교 교육활동의 직업 이해교육 강화

### 2-1 직업이해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강화

- 교과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의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
  - 모의 창업이나 토론과 같은 수행과정 위주의 수업 진행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직업세계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함.
  - 원어민 영어강사,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등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직업관과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및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직업군을 비교하는 계기로 활용
  -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 협소한 이해 등 관련 이슈를 수업 시간에 다뤄 학생들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해야 함.

**사 례** 프랑스 중4학년의 직업세계발견교육  
(l'enseignement de découverte professionnelle)

- 프랑스의 직업세계 발견교육은 주당 3시간짜리 선택교과나 주당 6시간짜리 모듈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의 목표는 직업소개, 직업수행의 조건 구분(직장유형, 부분 등), 조사한 직업을 분류, 기술발전과 직업 활동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조사, 조직의 다양성 이해(기업, 공공조직, 단체 등) 등을 포함함. 3명의 교사, 도서관 교사, 진로상담전문가가 공동 지도하며 수업의 방식은 정보탐색, 쓰기-읽기, 이미지화, 토론 등으로 이루어짐.

○ 학교단위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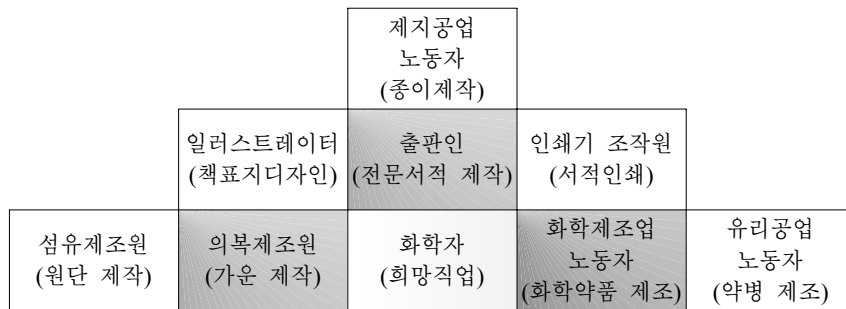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 및 왜곡을 해소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초·중등단계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요함.
- 직업세계 이해교육 요소가 교육과정에는 여러 영역으로 존재하나, 단편적으로 흩어져 기능함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일관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교과 및 교과외 활동에 단편적으로 분산 존재하는 직업 교육적 요소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직업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권장

2-2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적 위주의 진로경로 설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안내서 개발 및 접근성 보장
  - 미래의 직업세계 등 진업 관련 정보자료를 CD 형태로 제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학과와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정과 교사의 진학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접하고 폭넓은 직업관 형성
  - 컴퓨터 판타지 게임과 같은 유형의 게임을 현대 직업세계를 배경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인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가상으로 경험해보도록 함.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블록 쌓기’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직업들의 이해를 통해 직업편견 극복

[그림 3-10]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블록 쌓기



- 현재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

※ 예를 들어, 편견을 받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상해보는 프로그램 등

- 직업에 대한 편견을 주제로 하는 응변대회나, 백일장,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업편견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 등 직업 친화 교육 전개

- 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POP, 조리, 공예 등 전문적인 기능을 접함으로써 직업 친화적인 태도를 육성
- Blue Ocean 분야 직업에서의 성공사례나 2~3대째 같은 직업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들의 사례를 만화나 동영상 등 재미있는 형태로 보급

2-3 창의적 체험활동의 직업 이해 프로그램 강화

○ 폭넓은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창업 동아리 운영

- 취업을 넘어선 직업의 세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창업 동아리를 운영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교육, 작품 제작, 창업 동아리 페스티벌 행사 참석, 벼룩시장 개최, 캠프 참가, 관련 직업분야 견학 활동 등 다양한 직업교육 활동이 동아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모의창업이나 모의 주식투자 게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취업 외에 창업이 진로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함.

**사 례** 갈산 중학교의 창업 동아리 운영

○ 갈산 중학교는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0년의 경우 곰인형 제작 및 판매, 토피어리 제작 및 판매,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 한지상품 제작 및 판매, 비즈상품 제작 및 판매, POP제작, 친환경 과학 재활용품, 기술공작활동, UCC 및 영상물 제작 등의 창업동아리를 운영하였음.

- 학생이 주도적인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 진행
  - 학교 내 벼룩시장이나 바자회 운영, 축제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제 감각과 경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팀워크를 익히게 함.
  - 10년 후, 또는 20년 후의 자신을 위한 명함 제작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 이를 통해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식될 수 있음을 알고, 직업과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닫도록 함.
  - 학교내로 공작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목공예, 전자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의 직업체험 접근성 강화
  - 직로체험의 달을 강화하여 직업체험관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일정기간동안 현장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 례 일본의 커리어 스타트 워크(career start week)**

- 일본에서는 학생에게 5일 간의 직장체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커리어 스타트 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커리어 스타트 워크의 운영은 사전학습(자신의 이해와 직업 탐색, 직업체험장 탐색), 자선학습(체험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안전 의식 등 직업체험 대비 교육), 현장학습(직장에서의 체험), 그리고 사후 학습(사후 자기 평가와 체험한 기업에게 보낼 감사편지 작성)으로 이루어짐(신미진, 2008).

**방안 3.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전문성 강화**

**3-1 교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 교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제고
  - 교과목별 관련 직업군 소개 및 이해교육을 위하여 해당교사의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직업이해교육이나 체험 수업 진행을 지원. 이를 위한 연수, 교재, 지침서, 교구 등을 제공
  - 교사마다 담당 교과과목과 관련된 직업군 하나를 담당하여, 이를 지원할 직업 이해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여 개개인의 교사를 지원해야 함.
  -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관련 직업 분야의 진로지도와 직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교사들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제고

**사 례 양진중학교의 1교사 1직업군 탐색**

- 양진 중학교에서는 23명의 교사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의한 23개의 직업군을 하나씩 담당하는 체계를 운영하였음. 직업군의 탐색은 방학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각자 담당 직업군과 관련한 진로교육을 실행하였음.



### 3-2 단위학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 단위학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제고
  - 직업 이해교육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배려되어야 함.
  - 일부 담당 교사에게 수업 및 행정의 부담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교원이 참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이해교육 수행을 위한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직업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팀으로 활동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단위학교의 직업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교원들의 연구회 구성·운영을 장려하며, 연수 및 교사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직업 이해교육에 대한 수업방안 및 교육방법의 공유를 확대

#### 사 례 산곡여중의 체험중심의 직업군 동아리 운영

- 산곡여중에서는 각 학년별로 운영되는 13개 직업군 동아리(3학년은 11개 동아리로 총 37개)와 연합동아리 13개를 합하여 총 50개의 직업군 동아리를 운영하였음. 참여한 50명의 교사들은 학년별로 3개의 팀과 자생 동아리 담당 1개 팀을 포함한 총 4개 팀으로 나뉘어져 팀원 간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학교 도서관 내에 커리어존을 설치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관련 정보를 산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도움.

- 직업 정보 전문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 PC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신뢰도 높은 직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3-3 교육청의 관련 전문성 강화

- 교육지원청의 직업교육 담당부서의 역할을 초·중등 단계 전반으로 확장
  - 현재 직업교육 담당부서의 일반적인 업무는 특성화고 등 전문적인 직업교육 업무에 국한되고 있음.
  - 직업교육 담당부서의 역할을 확장하여 초·중등 단계의 직업세계 이해교육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배정
  - 직업 이해교육 담당부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 도우미, 직업분야의 자원봉사 등 각 지역의 복지관, 사업체 및 대학 등을 활용한 지역 차원의 직업체험을 활성화하는 업무까지 포괄
-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직업세계 이해교육 연구회 운영 지원 활성화
  - 시도교육청 단위 연구회에서는 직업이해교육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 연구회를 통해 직업세계 이해교육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여, 타교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직업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 등을 네이버와 싸이월드 등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손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방안 4.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4-1 정부부처별 협력체제 활성화

- 부처별 창의적 직업 발굴 및 소개
  - 각 정부부처별로 해당분야의 창의적 직업을 발굴하고 소개하여 정부부처 차원의 교육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의 직업세계관을 넓히고 학생들에게는 현존하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개척될 수 있음을 알게 함.
- ※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한 『행복일터 캠페인』 확대
  - 고용노동부의 『행복일터 캠페인』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터의 범위를 넓히고, 방학이나 주말 또는 방과 후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를 장려
  -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학교 측에 신고를 하여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교 차원에서 사업주들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웹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도록 함.
- ※ 행정안전부의 협력을 통하여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한 체험 확대

- 지역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 학생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수립

○ 직업이해교육을 위한 봉사학습 강화

- 학생의 직업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봉사차원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야 함.
- 병원의 환자안내와 은행 공과금 납부 도우미 등 다양한 직업분야 (예: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의한 23개의 직업군 중분류)에 봉사 자리를 마련. 이러한 단체들에서의 활동을 봉사활동시수로 인정함.
- 현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여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2 학교와 외부자원의 협력체계 강화

○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의 인력, 시설,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산업분야 또는 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을 가르치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장점을 활용
- 학생들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시설을 직접 접하고 비교함으로써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할 수 있음.

**사 례** 부산 동의과학대학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동의과학대학에서는 학교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였음. 미용, 스포츠, 미디어, 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십여 개의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산업체와 초·중등학교의 연계 활성화
  - 기업체로서는 교육기부의 대상인 학생들이 곧 미래의 고객임을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직업 탐색과정에서는 체험관이나 대학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진로 결정 단계에서는 산업체에서의 현장직업체험이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체계 마련
  
- 지역사회 직업인을 활용한 교육활동 강화
  -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직업인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함.
    - ※ 예를 들어, 빛의 원리 교육이 필요한 과학 시간에 관련 전문가인 동네 사진사를 활용한 협력 수업 혹은 인체 비율 전문가인 화가의 수학 교과 협력 수업 등
  - 학교 단위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인 풀을 확보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직업인과 학생들 간의 멘토링 체계 강화
  - 교육활동 경험이 부족한 외부 직업인의 교육 참여를 위하여 교원 및 외부 직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 이해교육 연수 및 체험활동을 강화
  -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급식봉사, 안전활동 지원 등 일반적인 유

형의 봉사로부터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분야 자원봉사를 요청으로 학부모의 직업적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모범 기관의 학생 직업체험 인증서 발급 범위 확대 및 신뢰성 강화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출연(연)·기업·대학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병원, 직능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직업체험이나 관련 봉사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4-3 외부자원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

-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를 지원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각 지역별로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 산업체와의 연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 체계가 요구됨.
  - 직업체험에 참여 가능한 단체나 산업체, 전문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 차원으로 직업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하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지역 내의 대학, 사업체, 복지관 등을 섭외하여 직업체험의 장을 마련
  - 직업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력을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학생의 경험과 기업의 업무 지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유도함. 많은 훈련

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로부터 점차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훈련구조를 체계화 함.

- 교육에 참여하는 외부 단체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직업체험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실제 현장과 밀접한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Best HRD 선정 기준에 교육기부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기부에 참여하도록 홍보함.
  -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세제혜택 지원
  
- 지역 단위의 직업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의 접근성 강화
  - 학교의 공간적 제한이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보유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직업정보센터를 지역 단위로 설치
  - 전국의 교육지원청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하며, 전문적인 직업관련 상담을 하거나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배치

**사 례** 영국의 Jobcentre Plus

- 영국의 Job Centre Plus는 직업·연금부 산하의 기관으로 각 지역의 변화가마다 지부를 두고 있음. 고용주들은 이 기관을 활용하여 구인광고를 낼 수 있으며, 구직자나 학생들은 원하는 산업분야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9). 2011년 완공 「종합직업체험관」 첫 삽 뜬다, 보도자료(2009. 7. 15).
- \_\_\_\_\_ (2010). 청소년의 근로조건! 학생들이 알리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보호한다, 보도자료(2010. 12. 27).
- 고재성 외(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교육과학기술부(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 2010년 2월.
- \_\_\_\_\_ (2011). 2011.03.09 보도자료.
- \_\_\_\_\_ (2011).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2). 한국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송미(2011).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사례: 수리중학교 진로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제8차 전문가 협의회: 학교현장의 직업이해교육 실천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2010).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주요 실천방안, 2010년 미래교육공동체포럼. 3차 자료집.
- 김장희 외(2009).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분석」, 『상담학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53호, 한국상담학회.
- 노경란 외(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맹영임(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미진(2008). 직업체험을 활용한 중학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미(2011). 초·중등 학생의 직업세계 이해 실태와 과제, 2011년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제7차 전문가 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2011. 4. 26).
- \_\_\_\_\_ (2011). 취약계층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두드림존프로그램-고용촉진지원금제도 연계. 보도자료(2011. 4. 27).
- 오다 유카리(2009). 중학생 직업체험 현황 (한국과 일본의 중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교육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언(2009). OECD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DB.
- \_\_\_\_\_(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2006).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택수 외(2009).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직업관련 기술현황 분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연순(2010).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정윤경(2010). 여성의 유망직업과 청소년 희망 직업. 10년 후 한국의 직업세계 전망 세미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소기업청(2010). 전국의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모여라.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 보도자료(2010. 9. 8).
- \_\_\_\_\_ (2011). 한국의 주커버그가 될 청소년 CEO 육성. 새싹기업육성 프로그램 도입·운영 보도자료(2011. 3. 30).

- 중앙고용정보원(2003). 2003년 한국직업사전. 중앙고용정보원.
- 지식경제부(2009). 미래 기술강국 KOREA의 주역을 위한 “청소년 산업기술체험캠프 개최”. 보도자료(2009. 1. 7).
- 최인재(2009) 『한국청소년지표조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0). 2010 청소년통계.  
\_\_\_\_\_ (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_\_\_\_\_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 한국고용정보원(2008). 초, 중, 고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2009). 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_\_\_\_\_ (2010). ‘2010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직업사전Ⅱ’  
발간. 보도자료(2010. 7. 15).  
\_\_\_\_\_ (2010). 직업체험도 하고 진로설계도 하고. 2010 진로  
직업박람회 보도자료(2010. 11. 2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미래의 직업세계: 제1권 직업편』,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 한상근 외(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2009). 『창의적 커리어 패스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
- Johnson, R. (1976). Notes on the School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In R. Dale, G. Esland, & M. MacDonald(Eds.),  
Schooling and Capitalism: a sociological leader (pp. 44~54).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Lloyd, C. B., El Tawila, S., Clark, W. H. & Mensch, B. S. (2003).  
The Impact of Educational Quality on School Exit in Egypt.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7:4, 444~467.
- Payne, J. (2001). *Post-16 Students and part-time jobs: Patterns and effects*. Norwich: Queen's Printer.

## 제4장

#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 방안

제1절 배 경

제2절 교육기부의 개념 및 유형

제3절 교육기부 사례분석

제4절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고려사항

제5절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제6절 교육기부 활성화의 기대효과



## 제2장 |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 방안

### 제1절 배경

- 지난 반세기 높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나눔과 배려’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국민적 자부심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노력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나눔과 배려’의 움직임은 최근 교육 분야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임.
-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여전히 크고,

11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사회적으로도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됨.
- 교육적 관점에서도 교육기부의 긍정적 의미가 조명되고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미래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의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역량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확대되면서 더욱 주목으로 받고 있음.
  - 한편 정규 교육과정에서 뒤떨어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교육 영역에서 ‘나눔과 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는 추세임.

## 제2절 교육기부의 개념 및 유형

- 교육기부 개념
  - 교육기부는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교육

- 과 관련된 일상에서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부 활동은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맞물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 그러나 교육기부 활동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교육기부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여전히 유용하고, 여기서는 정책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교육기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교육기부 주체가 초·중등 교육 활동을 지원 또는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

□ 교육기부 개념요소

- 교육기부 주체
- 교육기부 주체는 ①교육기부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과 ②조직적인 교육 기부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또는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최근 조직적 차원의 교육기부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①교육기부를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조직과 ②비록 설립 목적이 교육기부가 아닐지라도 조직 활동의 일부로 교육기부를 수행하는 단체, 조직으로 나눌 수 있음 (예: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기관의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창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교육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



- 교육기부의 목적 및 내용
  - 교육기부의 목적과 내용은 교육기부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속성상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적 관심인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부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학습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부자가 가진 전문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와 관련된 학습 부진아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과중심 방과후 교육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기부
- 국가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교육관련 규제로 인하여 정규 교육과정이 학생의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적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이고 심화된 학습 경험을 학생의 학습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과학기술 분야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활동, 기타 비교과 분야의 특화된 교육 활동 등
  - ※ 비록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하는 내용의 학습활동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

□ 교육기부 비영리성

- 교육기부는 기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다만 ‘대가없이’가 모든 점에서 반드시 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보다 합목적적 관점에서 기부 주체가 교육기부와 본질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예: 교육기부 활동자의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하여 정부나 다른 기부주체 또는 수혜를 받는 학교 및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즉 교육기부 주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예: 인적, 물적, 무형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최소한 필수적 경비는 다른 주체나 수혜자로부터 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교육기부 유형

- 교육기부 활동을 어떠한 일률적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기 어려우나 기부주체가 어떠한 자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4-1〉 교육기부 방법 및 내용

기부형태	기부내용	설 명
인적기부	재능기부	○ 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데 활용하는 것 - 학습지도, 교육방법 상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등
	노동력	○ 비록 전문적인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교육적 활동에 자원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 학부모 교통봉사대, 실버봉사단 등
물적기부	재정 재원	○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후원 - 저소득 학생에 장학금 지원 또는 학교발전 기금 지원, 학술연구에 재원지원, 기업의 교육기부 단체 후원 등
	기자재·시설·장소	○ 기부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설비 또는 장소를 교육적 활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기증하는 것. - 시설 및 교구 제공, 실습 기기 대여, 체육관, 실습실 등
무형자산기부	프로그램·콘텐츠	○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습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 제3절 교육기부 사례분석

#### 가. 인적기부 사례

##### □ 공부의 신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1:1 멘토링(청소년자활센터, 방과후교실

등), 선배와의 만남(매달 무료캠퍼스 투어 및 상담), 학습법 및 동기부여 강연회, 무료매거진 발행(전국학교 배포), 자기주도 학습법 단행본 발행, 공신닷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배포, 방학 기간 시골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한 농촌학생 멘토링 및 강연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부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육기부 활동의 지속가능한 모형으로 주목됨.

□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 2007년 중학교 수준에서 교육적 소외계층에게 추가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중심의 결성된 교육봉사 단체
  - 학생과 1:1 멘토링 방식을 주로 선택하는 ‘공신’과는 달리 지정된 학습장에서 교과목 지도를 중심으로 활동
  - 교육 수혜자와 자원 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 현재 서울 금천구, 마포구, 용산구와 대전 유성구에 교육장 운영
    - ※ 대우증권, 용산구청, 제일기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후원금과 교육장 등을 제공
- 대학생 중심 교육봉사 단체로서 선구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 배나사 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발급 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에서 사회봉사과목 수강 및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 정규 교과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교육활동에 활용
  - ※ 교재 제작과정에서 사기업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

#### 나. 인적·물적 기부 융합 사례

##### □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활동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교육청이 함께 중·고교생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기부 사업 (2010년 2학기부터 시작)
- 현재 63개 전문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연간 최대 50만 명의 중·고교 학생이 인근 지역의 전문대학 교수와 조교, 구비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됨.
- 중·고교생들이 인근 전문대학을 방문해 교수나 조교, 대학생에게서 해당 직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됨(예: 미용학과에서 메이크업과 미용실습, 식품학과 계열에서 제과·제빵 실습, 호텔경영학과에서는 커피 제조 등 바리스타 체험 등).

- 전문대학이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진로지도, 다양한 전문 교육체험, 중소기업 현장학습 등이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대학이 보유한 연구·생산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장려할 수 있게 됨.

□ 성균관대학교 ‘빵점학교’

-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들이 여름 방학마다 개최하는 대안학교로, 1994년부터 17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 학생회 주최로 사범대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고 매년 서울 지역 중학생 100여명 참여하고 장소는 대학이 제공한 강의실을 이용
  - ※ 8월 초 일주일 수업 (월~금요일 5일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 대학으로부터 공식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봉사활동시간과 약간의 시설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활동 경비, 조직, 수업구성은 사범대 학생회와 자원 대학생들이 맡고 있음.
- 대학으로부터 자금지원은 없어 대학생 회비(2만원), 참여 중학생 회비(1만원)로 운영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교육기부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사례)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과학문화를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할 목적으로 ‘Edu-sea를 즐겨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내 해양 과학 체험’을 기획, 운영
  - 해양 현장에서 해양화학, 생물, 지질분야의 해양과학 강의, 연구선 승선 및 채집활동, 생물실험/관찰/분석 등을 통해 미래 해양과학자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위해 우수한 물적(연구선, 실험실 등), 인적(석·박사급 연구원, 기술·행정 지원인력 등)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체험활동 참가 대상자는 연구소 주변 영남권 학생으로 한정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적 내용의 학습활동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창의교육, 체험캠프라고 평가되고 있음.

다. 물적 기부 사례: SK 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지원

- SK텔레콤은 2003년부터 재정지원을 통해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운영해 왔음.
-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성장한 Sunny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자아를 찾으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

- ‘I Scream’, ‘해피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재능 나눔을, ‘하이 티처’, ‘행복한 모바일 세상’, ‘주니어 프로보노’ 등을 통해서 지식 나눔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지역자원봉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NGO 등과 연계된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함.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며 점차 체계화 조직화되어 전문적인 봉사활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갖게 되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남을 돌볼 줄도 아는 사람, 남을 돕는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제4절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고려사항

##### □ 체계적인 교육기부 지원시스템의 미비

- 현재 활동 중인 교육기부 주체들은 자신들의 자원 및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를 탐색하는 한계가 있고,



12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교육기부 활동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는 학교 밖 교육 자원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폐쇄적 교육활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 교육기부 주체와 교육수혜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은 다음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교육기부 주체: 애로사항 해결 및 활성화 지원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률상, 재무회계·세제상 문제  
기부활동에 필요한 공간, 웹페이지 등 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문제  
질 높은 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기부 프로그램의 수혜자 탐색  
교육기부자 사이의 지식 및 노하우 공유  
교육기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증 등
  - 잠재적 교육기부 가능자: 유인 및 활동 개시 지원  
최초 활동에 필수적인 웹 기반 구축 등 초기비용 수반 문제 지원  
소액기부의 창구 역할 및 수혜자 연계  
조직차원 기부활동 희망자에 대한 기존 교육기부 조직 알선 등
  - 교육기부 수혜자의 의식 변화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학교 밖 교육자원/교육기부의 적극적 활용
  - 교육기부자와 수혜자의 체계적 연계
- 이 경우도 교육기부 주체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

원은 하되, 개입 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과 오프라인 지원 시스템을 병행

- 아울러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한 다른 지원 시스템과도 연계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지원시스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지원시스템 간의 연계가 없을 경우 중복 및 충돌의 우려가 있음

□ 교육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적 지체 현상

- 교육기부는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사회 현상으로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음.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체 현상을 보이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사 례** 부산 동의과학대학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최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위주로 하는 인적기부가 조직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존 조직을 법인화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이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문 비영리 공익법인은 장학 및 학술단체에 한정하고 있어, 교육을 목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에 제한이 따름
-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를 사립학교 또는 학원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교육기부 정책 주체와 민간 교육기부 주체의 관점 차이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교육기부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민간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한 교육기부 활동의 장점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공교육 시스템(정규 교육과정)과도 적절한 관계 형성이 필요함.

○ 그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교육기부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부를 경직적으로 유도하거나,

- 정부 주도로 관련 단체 또는 조직을 만들어 기존 관료적 행정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정신을 훼손하고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관주도의 교육기부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민간의 자생적 교육기부 활동을 흡수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주도의 단체를 새롭게 만들기 보다, 현재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육기부 기관/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한국형 브랜드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정부는 민간 교육기부 활동이 자율적으로 성장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교육기부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증 등 지원 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 문제

- 교육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즉,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육기부 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따라서 교사, 교장 등 학교 구성원이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에서 지역 학습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고,
  - 학생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 학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개방적 태도가 요청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즉,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창의적 체험 활동과 대안적 교육이 교육기부 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며, 정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가능하게 함.
  - 교육청 등 관료적 조직이 교육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지나치게 교육기부 활동에 개입하거나 학교교육 활동과 경직적으로 연계하려는 태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 제5절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 □ 정책의 주요 방향

---

#### [ 국가 정책 차원 ]

##### 방안 1. (가칭) 교육기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1-1 전문적인 “교육기부 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방안 2. 범정부적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2-1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육기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 방안 3. 교육기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 3-1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검토

##### 방안 4. 교육 콘텐츠 등 무형자산 기부 활성화

- 4-1 무형자산 기부의 효율적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기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부된 무형자산에 이용 신청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 마련

####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차원 ]

##### 방안 5. 교육기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보급

- 5-1 구체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적 교육기부 주체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
- 5-2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표 계속>

---

**방안 6. 교육기부 정보 네트워크 운영**

- 6-1 지역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계하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방안 7. 교육청 차원의 교육기부 인증**

- 7-1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부 활동과 각 급 학교를 통해 접수된 교육기부 활용 내역을 기초로 하여 교육기부 참여자 또는 교육기부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
- 7-2 중앙 차원에서 구축된 교육기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의 사회적 통용성과 사회적 보상을 확대

**방안 8.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공유**

- 8-1 각 급 학교에서 교육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 밖 학습자원의 성공적 활용 사례를 수집하여 각 학교가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8-2 교육기부 우수사례는 백서 등으로 제작 교육기부자 및 기관에게 배포하여 향후보다 질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여

**[단위학교 차원]**

**방안 9.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교 밖 양질의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9-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를 학교 밖 교육기부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 경험에 연계하여 운영

**방안 10. 학교 차원에서 학교 인근의 교육기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

- 10-1 방과후학교부장과 같은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안내 전문가 양성

**방안 11.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학습 조력자(learning consultant)가 되어야 함**

- 11-1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계획에 따라 적절한 학습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 중앙정부 차원

**방안 1. (가칭) 교육기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교육기부 주체가 제공하는 기부물과 필요한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전문적인 “교육기부 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부 내용(시설/기자재, 교육저작권 및 프로그램, 기부자의 전문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수혜자와 연결함으로써 교육 기부의 목적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교육기부 중개기관의 주요 활동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기부 주체와 교육기부 대상 연계 웹기반 On-line 활동 외에도 사무실 기반 Off-line 활동으로 방문자 면담 및 조언 등 실시
  - 교육기부 주체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여, 기부주체 사이의 노하우 및 인적자원 교류를 도모
  - 기부자 또는 기부단체에 대한 조언과 지원 활동(법률, 회계 운영 등)
  -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객관적 인증 시스템 운영
  
- 운영 방안
  -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시설을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

- 교육기부 관련 민간 전문 자원봉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예: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 방안 2. 범정부적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교육기부 활동은 예체능 분야에서 문화기부, 교육복지와 연계된 사회복지, 대학생 참여 등 자원봉사 제도, 사회적 기업 제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제도 등 다른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따라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육기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제도: 국무총리실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기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제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제도,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도 감독 등
- 주요 활동
  - “교육기부 경진 대회” 등을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 교육기부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체계적인 활동 추진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기부 활동을 찾아 인정하고 시상하는 기회 마련
- 교육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주체, 유형, 분야, 지역별 편차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향후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교육기부 인증시스템 마련

- 교육기부 참여자(특히 대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 격려 문화와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취업 등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증기준과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대학의 경우 봉사활동, 학점 인정 그리고 졸업 요건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주관 보다는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 시스템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확대될 경우, 이를 사회적 브랜드화하고 국가 브랜드로 육성함.

(예: 미국 Teach for America)

**방안 3. 교육기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 교육기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행됨.

-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기부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되도록 지원하거나, 잠재적인 교육기부 희망자들을 유인하여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업 방식

- 교육기부 활동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공모 및 신청에 따른 선정과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함.
- 선정은 민간 부문의 교육 전문가, 자원봉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함.

**방안 4. 교육 콘텐츠 등 무형자산 기부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창의적 교육 활동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교육 저작물과 학습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무형자산 기부와 관련된 법적 이해가 미흡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형자산 기부의 효율적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기부 절차

13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를 단순화하고 기부된 무형자산에 이용 신청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무형자산 기부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차원

**방안 5. 교육기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보급**

-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전문성과 우수한 기자재 및 시설을 보유하고 교육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적 교육기부 주체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음.
  -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학습 전문가와 관련기관(예: 교육연구정보원)들을 활용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관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할 수 있음.
  - 교육청은 교육기부자와 학교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중점

- 학교교육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 및 실험·실습 중심 프로그램 개발
-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기부 주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부 주체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맞춤형으로 개발
- 교육기부자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경우 요청되는 기본적 윤리규정 제시

#### 방안 6. 교육기부 정보 네트워크 운영

- 중앙 차원에서 교육기부 지원센터가 교육기부의 접수와 기부자에 대한 조인과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면,
    - 지역 차원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계하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 교육기부 정보 시스템은 관내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부 기관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육기부 희망자 명단과 교육기부 관련 전문성을 정리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함
    - 교육기부 정보 네트워크는 기존 시스템(예: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 및 기관(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 센터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역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은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의존하려는 학교와 자신의 실적 과시에 목적을 둔 기부단체 사이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양자(교육기부자와 수혜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사 례** 관련 사례 (김경애, 2010)

- ▶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자원 안내’
- ▶ 노원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자원 분포도’
- ▶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온고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 교육기부자 및 기관은 교육기부 정보 네트워크에 제공하려는 교육기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탑재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수혜자를 찾을 수 있고,
  - 학교와 학생은 지역 내 교육기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학습 프로그램을 찾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기부 네트워크는 가정에서도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사 례** 서울형 배움터와 서울형 학습상점

-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교육기부 기관이나 단체를 “서울형 배움터”로 인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 밖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서울형 학습상점”)을 만들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자원의 특성과 리스트,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 학교 밖 교육경험을 평가하여 교육 이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방안 7. 교육청 차원의 교육기부 인증

-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부 활동과 각급 학교를 통해 접수된 교육기부 활용 내역을 기초로 하여 교육기부 참여자 또는 교육기부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음.
  - 교육기부에 대한 인증은 객관적으로 ‘제공한 교육기부의 내용(기부물, 기부에 소요된 시간, 수혜자 수 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교육기부 인증은 지역별로 자체 인증 형식을 갖추고 활용할 있는 반면,
  - 중앙 차원에서 구축된 교육기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의 사회적 통용성과 사회적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차원의 교육기부 인증 브랜드로 확대 발전할 수 있음.

## 방안 8.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공유

-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 밖 학습자원의 성공적 활용 사례를 수집하여 각 학교가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차원의 워크숍과 박람회 등을 기획하고, 학교의 담당자 연수를 추진할 수 있음.

134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아울러 교육기부 우수사례는 백서 등으로 제작되어 교육기부자 및 기관에게 배포함으로써 향후 보다 질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다. 단위학교 차원

**방안 9.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교 밖 양질의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를 학교 밖 교육기부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 경험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 정비를 전공하거나 관심있는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동시에 지역 자동차 정비공장에서의 훈련, 대학의 관련 전공 동영상 강의 청취,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수와 연계될 수 있음(배상훈 외, 2010).

**방안 10. 학교 차원에서 학교 인근의 교육기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

- 이를 위해 현재 일부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부장과 같은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안내 전문가가 필요함.

- 이 경우 학교 밖 교육기부 활동과 학생을 단순히 연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기부에 따른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례: 서울 용광초등학교, 광주 하남중학교의 지역 연계망 사례(김경애, 2010)

**방안 11.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학습 조력자(learning consultant)가 되어야 함**

- 교육기부를 통하여 제공된 학습 경험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유의미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교사는 단순한 교육내용 전달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나 교수방법 전문가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학습 조력자(learning consultant)가 되어야 함.
-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계획에 따라 적절한 학습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경험하는 개별화된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평가하여, 학생들이 향후 진학 또는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 흥미, 요구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코칭할 수 있어야 함.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실천방안(김경애, 2010)

-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의 다양화
- ※ 외부 전문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통합 교육과정 운영
- ※ 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특별교육(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등) 활성화
- ※ 학생들의 외부활동 기회 확대
-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
- ※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 제6절 교육기부 활성화의 기대효과

### □ 국가·사회적 관점

- 한국 전쟁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시민 의식의 성숙이 요청됨.
  - 특히 교육에 있어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 경험을 배우려는 추세가 늘고 있고,
  - 글로벌 수준의 교육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도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사회체제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함.
- 교육기부 활성화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임.

□ 교육발전 관점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교육 서비스 시장의 발달로 학교가 모든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음.
- OECD가 제시한 미래학교 모형에서도 학교가 학교 밖 교육 자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는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 모형’을 학교 혁신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OECD 미래학교 모형(OECD, 2003)

- ※ 현 상태 유지
  - 관료주의적 학교시스템 유지
  - 시장지향적인 학교로 전환
- ※ 학교 혁신 모형
  -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의 중심
  - 학습조직으로서 학교
- ※ 학교 해체 모형
  - 학습자 중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 교사 엑소더스와 학교 붕괴

- 교육기부는 다양하고 질 높은 학교 밖 학습 자원과 아동의 학습경험을 자발적으로 매개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수준 높은 심화 학습을 가능하게 함.
- 지금까지 학교와 학교 밖 학습자원을 연계해 온 전통적인 관료적 행정수단에 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교육기부의 활성화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교육적 연계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 강화에 기여함.

□ 학생의 성장 및 발전 관점

- 앞으로 창의성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의 원천임.
  - 또한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토대로서 인성의 함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아동을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는 전 사회의 교육적 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고,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한편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등 미래 인재도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즉,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게 되고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 참여 의식을 키움으로써 창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 김경애(2010).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실천방안, 제5차 미래교육 공동체 포럼 발표자료.
- 김운정(2010). 창의적 체험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교육의 현실, 변화의 마지막 기회, 과학창의 칼럼, ScienceTimes, 2010년8월 5일자.
- 배상훈 · 김현철 · 장환영 · 고장완 · 오범호 · 현영섭 · 송경오(2010). 서울교육비전 2030.



## 제5장

#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학부모 학교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 추진현황

제3절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제5장 |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 제1절 학부모 학교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사회 ‘교육 에너지’의 열쇠말로서 학부모
  - 높은 교육열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 197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구매력평가지수 기준)는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미국의 60% 수준을 상회함
    - 우리나라 교육열의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김태중(2007)은 연0.6% 포인트로서 세계 상위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의 나라가 교육열 미진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더디지는 현상과는 차별화됨을 제시
  - 교육열은 학부모를 통하여 교육활동으로 구체화되어 교육발전을 선도하였음.



- 이종각(2011)은 교육열의 핵심사항으로서 동기적 교육열을 지적하고 이는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다른 아님을 제시
  - 교육발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여하히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됨.
  - 높은 사교육 비중이나 입시위주 교육, 기러기 가족(조기유학)과 같은 비효율적인교육현상의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점이 있음을 지적(이종각, 2011)
  - 급변하는 사회상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활용하는 정책이 절실함.
- 현재 공교육 부문의 많은 영역이 학부모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
-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인식과 정책 태도는 학부모 교육열이 제도권 밖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됨.
  - 많은 경우 학부모의 교육 열정과 에너지는 ‘치맛바람’, ‘맹목성’, ‘출세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으로 매도되거나, 학부모와 교사, 학교와의 갈등 혹은 촌지문제와 일부 같은 사례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함.
  -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제도권 밖의 사교육이나 해외교육으로 분출되는 계기로 작용함(이명희 외, 2009).

-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  
부문의 상당한 영역이 학부모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유지·  
운영되고 있음.
-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나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참여 등은 가정교육 차원의 학부모 활  
동을 넘어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량임.
- 초등학교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  
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 4,156개 조직  
에 506,53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표 5-1〉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유형

학습	방과후학습지도봉사단, 영어수업봉사단, 시험보람봉사단, 야간학습자원봉사단, 학습자료도우미, 학부모보람교사회, 명예교사회 등
도서관	사서도우미회, 도서봉사위원회, 도서명예교사, 도서관봉사단, 책 읽어 주는 어머니 모임 등
급식	급식봉사위원회, 급식모니터단 등
학교행사	체육대회도우미, 지역사회어머니회
안전관련	안전동지회, 방과후안전지도모임, 학부모자치방법대원,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상담관련	상담도우미, 학부모상담도우미 등
공동구매 및 기타봉사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나눔봉사단, 각종 봉사 관련 모임 등

출처: 경기도교육청(2011).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아하! 그렇군요. p.18 참고.

- 학부모의 교육 에너지를 공교육 내실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학부모 위상 정립이 요구됨.
- 우리 교육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추동력 형성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 교육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체제를 넘어 특색있는 학교 및 교육과정의 실현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
  - 정부는 학교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교과중점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도입하고 2009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계 확산으로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교육개혁은 교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서 학부모의 참여가 절실함.
- 학부모의 교육 에너지는 교육발전과 학교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 및 위상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학교의 출발부터 학부모가 교육개혁의 추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였음(이명희 외, 2009).
  - 선진국의 예에서도 교육발전과 새로운 학교경영 등 학교혁신에 학부모의 참여 및 파트너십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음.
    - ※ 지역사회와 밀접한 유대로 학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운동,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헌장학교(charter school)운동 등(이순형, 2003)

- 일본의 PTA는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일본 민주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단위학교별 및 전국적 단위로 운영함.
  - ※ 일본 PTA는 학교-시-현-지방-전국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돈독한 파너십을 추구함. 전국단위의 일본PTA는 문부과 학생의 중앙교육심의회 등 교육 및 학교행정과정 전반에 학부모대표를 파견하고 있음(우마이 마사유키, 2009).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는 단순히 공교육의 자원봉사자 확장 정도를 넘어 교육개혁 및 학교혁신의 추진동력으로서 위상을 재점검하여야 함.

## 제2절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 추진현황

### □ 학부모 정책 및 학부모 활동 추이

- 재정적 후원 성격의 학부모 조직('46~'95)
  - 해방이후 학교 재정 후원을 중심으로 학부모 활동 시작
    - ※ 학교별 후원회('46~'53)→사친회('53~'62)→기성회('63~'70)→육성회('70~'95)
  - 교육예산 부족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부모에 의한 재정적 지원활동이 중심이었음. 재정적 후원이 의무적 관행으로 변질되어 부작용이 나타남.

- 학부모의 학교참여 법제화('96~)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95년 5·31 교육개혁 방안)  
이에 따라, 육성회가 폐지되고, 중고교 육성회비는 학교운영 지원비로 전환('96~)  
'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학부모회 활동 장려
  
- 교과부 내 '학부모정책팀' 신설('09. 5)
  -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학부모정책 전담부서 신설·운영  
교과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부모정책팀이 구성됨.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학부모들을 위한 별도 세션을 구축
  
- 학부모 정책 추진 현황
  - 학부모 학교 정책 모니터단 운영
    - 학교현장에 교육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함.
    - 2009년(450명), 2010년(650명), 2011년(오프라인 500명, 온라인 3,000명)

〈표 5-2〉 학부모 학교 정책 모니터단 운영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운영형태	시범운영	정식운영	정식운영
운영기간	'09.9~'10.2	'10.4~'11.2	'11.4~'12.1
모니터링 대상 과제	학부모정책 중심	교육정책 전반 (방과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창의·인성교육, 고교다양화 등)	교육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각종 교육관련 위원회 참석 등
모니터단수	450명	650명	500명
예산	4.48억원	6.5억원 (특교 3.2억원/ 시·도예산 3.3억원)	3.35억원 (시·도교육청별 2,000만원 내외)지원

- '11년 3.35억원 지원 / 시·도교육청별 2,000만원 내외 지원
- '11.2.21~3.8 모니터단을 공모한 결과 총 1,426명 중 500명을 선발(경쟁률 2.9:1)

〈표 5-3〉 '11년도 시·도별 학부모 교육정책 오프라인 모니터단 인원 (총 500명)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모니터단 수	50	35	30	30	30	20	20	40
교육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니터단 수	30	30	35	30	40	30	40	10

- 전국 우수 학부모회에 예산 지원 사업 추진('09. 11~)
- 2009년 '10년부터 예산지원 발표 및 시범사업 실시

150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2010년 2,792여 개 학교 선정, 교당 500만원 내외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10.2.5~3.23)를 통해 전국 초중  
고 2,792개 학부모회 선정·지원('10.2~'11.2)
  - 학부모회 구성 현황: '09년 65% → '10년 90%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0.11.30)  
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아버지참여 4개 분야 160  
교 학부모회 우수사례 표창
  - 2011년 111억원 지원 / 3,200개교 학부모회별로 330만원 내외  
지원(전국 초·중고 11,387교의 약 28%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47개교) 지원예산 5억원 포함
- 2010~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 학부모들이 교과부에 요청하여 교육감 지정으로 운영하는 방식
  - 전국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2교, 총 47교
  - 시범학교 당 지원예산은 1,000만원('10), 9백만원('11) 교부
-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지원 3개 사업 계획 수립·추진('09. 7)
- 학부모교육(16억원)
  - 자원봉사단 지원(16억원)  
전국 392개 내외의 자원봉사 동아리당 300~500만원, 총 16억원  
지원
  - 학부모모니터단(4.5억원) 등

〈표 5-4〉 2011년도 사업별 예산 지원 계획<sup>4)</sup>

구분	운영기간	지원대상 or 분야	예산 지원금	합계
학부모회 지원	'11년도	전국 3,200개교 330만원 내외	약 105억원 560만원	111억원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11년도	전국 47개교	5억원	
학교교육 모니터링	'11년도	오프라인 500명, 온라인 모니터단 3,000명	시·도교육청별 2,000만원 내외	3.35억원
학부모교육	'11.3~ '12.2	학부모교육, 교육정책설명회, 자료개발, 전문교육	2,323백만원+ 120백만원+125백만원 +432백만원	30억원
학부모 지원 서비스	'11.5~ '12.2	16개 시·도교육청	시·도 평균 1.25억원	20억원
학부모상담사 운영	'11.4~ '11.12	- 전국 20개교 * 1,710만원 - 학부모상담사운영+학부모 상담사 연수 58백만원	342백만원+58백만원	400억원

-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실시('10. 6~)
  - 단위학교별 학부모 활동 업무 지원
    - 시·도 교육청별로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 선정
    - 2010년 전국 20개 학교 배치
    -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10. 10~)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설립('10. 10. 27)
  - 교과부 산하 전국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교육 정보 허브의 역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11. 3.)

학부모상담 콜센터 안내, 자녀 교육정보,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4)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152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홈페이지 연계, 온라인 학부모 강좌 등 지원

학부모 지원체계를 교과부-전국학부모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로 체계화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11.7~12)

총 지원액 5천만원으로 프로그램 당 최대 2천만 범위 내 지원

○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를 통한 학교정보와 학생정보 제공(’06.9~)  
전국의 학부모에게 서비스 확대·시행(’06.9)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allparents.go.kr] 개통(’11.3.31)  
및 홈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세션 신설·운영(’11.7.19~)

○ 학부모 연수 및 교육 지원

-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

- 2004년 부산 교육청 산하의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국내 최초의 학부모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학부모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 2008년 대구광역시 대구학부모교육센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08년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문화회관의 학부모 아카데미 진행

- 2008년 대전광역시 대전평생학습관의 학부모 아카데미: 단위 학교별 프로그램 지원

- 2008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성상담능력향상심화과정 직무연수를 통하여 성상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 2008년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학부모 교육: “행복 부모학교” 시작
- 2008년 경기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학부모 아카데미 12주 연강으로 운영
- 2008년 서울시는 각 구의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
- 2009년 ‘좋은 학부모교실’ 지원 사업 실시('09. 9)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 공모·심사를 통한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산 16억원 차등 지원하고 전국단위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제공
- 2010년 시·도별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상시적인 학부모 교육 운영('10.3~)  
'10년 학부모교육을 3,134회 개최, 총 20여만 명 참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 개최(총 23회, 8,800여명)  
학부모 대표 등을 위한 학교참여 전문교육 실시(8회, 1,300명)
- 사이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10.11~)
- 2011년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경감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교육 중점적 지원

### 제3절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문제점

#### □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학부모 요구

##### ○ 법적·제도적 운영 현황

- 헌법과 법률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본래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허종렬, 2010).

---

-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3조 ①②(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명시되고 있음.

-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 및 학교 등의 수렴, 존중 의무  
학교에 대한 의견 제시권(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기관 평가 참여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징계시 의견진술권(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시 의견 제시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부모의 교육정보권
  - 학교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내역과 결산에 대한 정보권(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 열람권(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 건강검사 결과 정보권(학교보건법 제7조)
  - 학교예산 및 결산 정보권(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6조)
- 각종 학교 위원회 참여권
  - 학교운영 참여권의 일반적 보장(교육기본법 5조)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초·중등교육법 3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 학부모의 교육의무 및 학교지원
  - 의무교육경비 등의 부담 의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7조)
  -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부담(초·중등교육법 30조의2)
  - 학교발전기금의 납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조)

□ 학부모 관련 조직 운영 현황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관련 조직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양적, 형식적 체계에 있어서 대체적인 면모  
를 갖추게 되었음.
- 전국적으로 학부모회 구성율은 2009년의 65.4%에서 2010년 4  
월 1일 기준으로 90.8%에 이르러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짐.

〈표 5-5〉 학부모회 현황

(단위: 개, %)

학교급	년도	학교 수(A)	학부모회 구성 수(B)	구성율(B/A)
초등학교	2009	5,800	3,780	65.7
	2010	5,856	5,276	90.1
중학교	2009	3,096	2,062	66.6
	2010	3,133	2,919	93.2
고등학교	2009	2,162	1,386	61.5
	2010	2,256	2,021	89.6
합계	2009	11,058	7,228	65.4
	2010	11,245	10,216	9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및 김춘진 의원실(2011).

- 단위학교의 전체 학부모가 연 1회 회합하는 학부모총회는 학부모회 구성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개최되어 96.3%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별로 비근무시간 개최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

〈표 5-6〉 2011년 학교급별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

(단위: 횟수, %)

학교급	학교 수	개최 학교 수	비근무 시간 개최 횟수
초등학교	5,877	5,731(97.5)	428(6.2)
중학교	3,125	2,990(95.7)	429(11.8)
고등학교	2,292	2,151(93.8)	1,152(34.5)
합계	11,294	10,872(96.3)	2,009(14.5)

출처: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11.5.4.

- 학부모 모임의 시간대도 전체의 16.7%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단위학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표 5-7〉 학교별 학부모 모임 주요 개최시간대('10)

(단위: 횟수, %)

구분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합계
초등학교	4,659(88.4)	496(9.4)	114(2.2)	5,269(100.0)
중학교	2,429(83.2)	446(15.3)	43(1.5)	2,918(100.0)
고등학교	1,380(68.3)	580(28.7)	61(3.0)	2,021(100.0)
특수학교 등	128(95.5)	0(0.0)	6(4.5)	134(100.0)
합 계	9,041(83.3)	1,586(14.6)	225(2.1)	10,852(100.0)

출처: 교과부(2011).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 학교급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평균 6.7회, 고등학교 7.8회 개최하였으나 비근무 시간 개최가 3.1%에 불과함.

〈표 5-8〉 2010년도 각급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횟수, %)

학교급	학교 수	학교운영위원회 총 개최횟수	비근무시간 개최횟수(비율)	학운위 평균 개최횟수
초등학교	5,835	38,817	890(2.3)	6.7
중학교	3,066	20,417	646(3.2)	6.7
고등학교	2,247	17,507	841(4.8)	7.8
합계	11,148	76,741	2,377(3.1)	6.9

출처: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11.5.4.(수)

- 대표적인 학부모 자원봉사 조직인 녹색어머니회는 2006년 경찰청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표 5-9〉 녹색어머니회 조직 현황

(단위: 명, 개)

지역	경 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총 계
총 원	184,223	96,508	21,021	20,146	20,169	16,015	17,114	13,109	506,539
학 교수	961	506	275	192	171	123	122	98	4,156
지역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 원	12,517	10,835	15,658	20,742	2,934	18,844	23,027	13,677	
학 교수	191	222	205	272	138	276	343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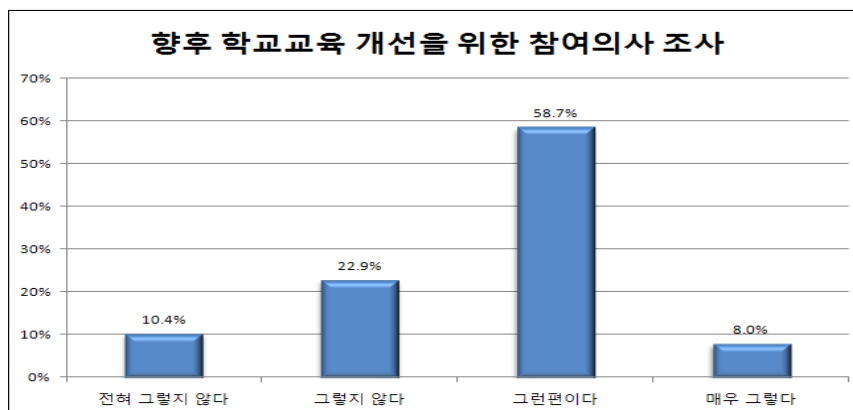
주: 경찰청, 2010년 연말 기준

출처: 김호연 의원실(2011). 보도 자료. 2011. 4. 7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 현황

- 다양한 학부모 지원 정책으로 외양적 학부모 문화는 갖추어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요구를 채우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영역이 많으며,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를 공교육 개선의 추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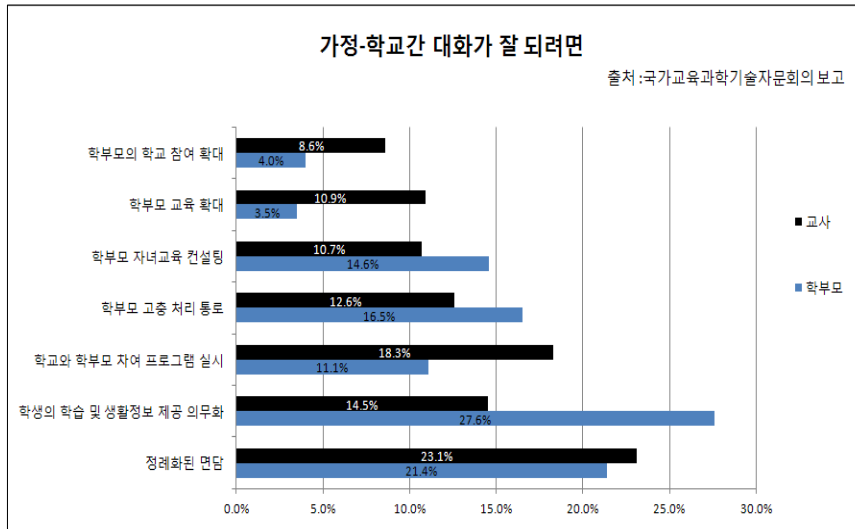
[그림 5-1] 향후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참여의사 조사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 학교참여 여론조사 보고서.

- ‘학교교육 개선을 위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그런 편이다 58.7% + 매우 그렇다 8.0%)가 참여의사를 보였음.
- 가정과 학교간 대화가 잘 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꼽은 방안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정보 제공 의무화(27.6%)’이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서 20%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얻은 방안은 ‘정례화된 면담’임.

[그림 5-2] 가정-학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설문 조사



출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방안.



## 2.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상의 문제점

### □ 학부모 활동 지원에 미흡한 법령 체계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 법령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법률은 전체적으로 제도교육 및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들이어서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지는 못함(이정호, 2009).
  - 예컨대, 교육기본법 제13조의 학부모 교육권 및 책무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보장은 되어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교육기본법 제5조 ②항의 학교운영 참여주체로서 학부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참여 주체를 밝힌 제3장에서 교직원(제1절) 및 학생(제2절)만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뿐 학부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박진상, 2009).
  - 미국의 경우 NCBL(No Child left Behind Act) title I, part A의 학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조항에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책무성 공유를 위해, 지역 요구를 반영한 학부모 참여 계획의 수립과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강소연, 2009).

□ 학부모 활동을 제약하는 학교 환경 상존

- 학교문화가 학부모 활동 및 접근성 측면에서 소극적이거나 학부모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
  -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이 형식적, 양적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제공되고 학교 방문이나 정보접근 등에 있어서 각종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학부모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부담스러워함.
  -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부모들의 접근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를 위한 공간 할애 및 서비스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내 360개 중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를 위한 세션이 첫 화면에 메인메뉴로서 제공되는 경우는 44.7%밖에 되지 않으며 아예 학부모를 위한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11.7%에 이르고 있음.
  - 학부모를 위한 세션이 있더라도 게시물이 월 2회 이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6%에 불과하며, 명목상만으로도만 운영되는 게시판도 다수로 나타남.

〈표 5-10〉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부모메뉴의 접근성

구분	첫화면 메뉴	서브메뉴	메뉴 없음	계
학교 수	161	157	42	360
비율(%)	44.7	43.6	11.7	100.0

주1: 서울시 중학교 360개 대상 (2011년 9월 15일 현재)

〈표 5-11〉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부모메뉴의 활성화 정도

구분	활성화	비활성화	계
학교 수	34	170	204
비율(%)	16.6	83.4	100.0

주1: 서울시 중학교 360개 중 회원가입이나 인증이 필요 없는 204개 학교 대상 (2011년 9월 15일 현재)

주2: '활성화'는 2011년 기준으로 학부모 세션에 게시물이 월 2회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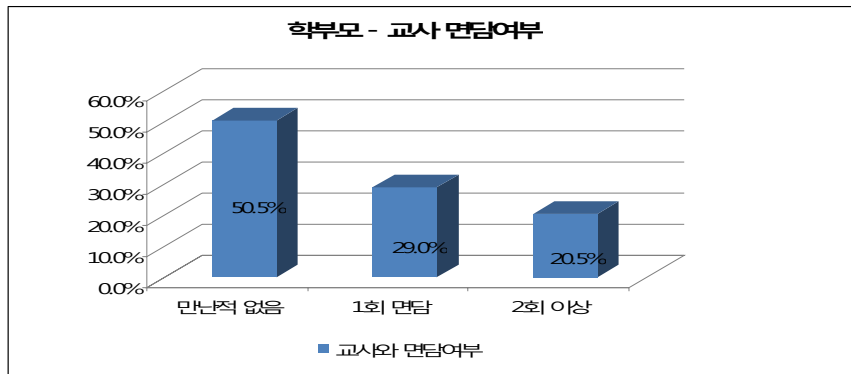
□ 학교 혹은 시도교육청 주도의 학부모 교육 및 활동

- 학부모회 구성, 학부모 총회, 학부모 교육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이들 교육 및 활동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주도하는 경향이 커서 학부모의 자발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단위학교별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단위학교 차원에서 는 학부모회의 자율적 문화 및 운영 역량이 취약하여 학교 및 교원 주도적 학부모회 운영이 되기 쉬움.
  - 학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세션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식의 게시판 운영이 대부분이 며, 학부모 메뉴가 다양하게 구비된 학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 지 않음.
  - 학교 및 시도교육청 주도의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참여 자발

성을 끌어내기에 한계를 노정(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11)

-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적 서비스로서 학부모의 자발적 문화 및 주도성 형성과 직접적 관계는 적음.
  -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모니터단 역시 정책움부즈만 성격의 조직으로서 학부모회 조직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임.
-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체계 미흡(서울시 교육청, 2010)
- 학부모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거나 할당식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교육만족도 저하
  - 우수 강사 인력풀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학부모교육 시스템 체계 미흡
  - 지역별로 운영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질 관리 및 성과 체계 미흡
- 학부모 면담 및 상담 등을 위한 교사의 시간 할애 부족 등의 사소통 채널이 취약함.
- 학부모에게 교사와의 대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의 절반인 50.5%가 ‘만난 적 없음’ 이라고 응답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 실질적 의사소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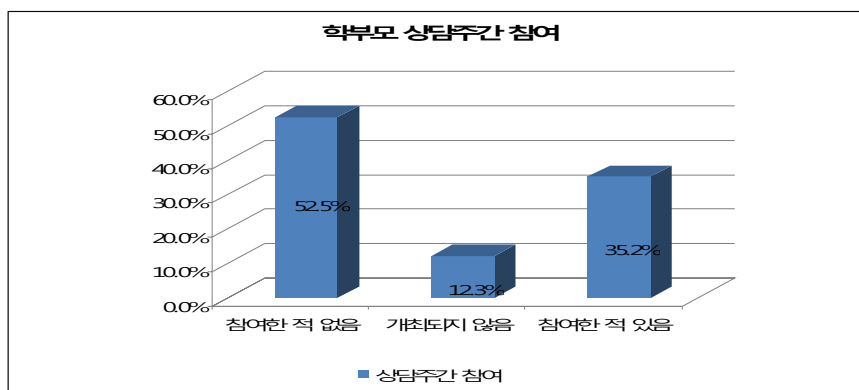
[그림 5-3] 학부모-교사 면담여부



출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방안.

- 상담주간 역시 반 이상인 52.5%의 학부모가 ‘참여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상담주간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임. 12.3%는 ‘학교에서 개최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학교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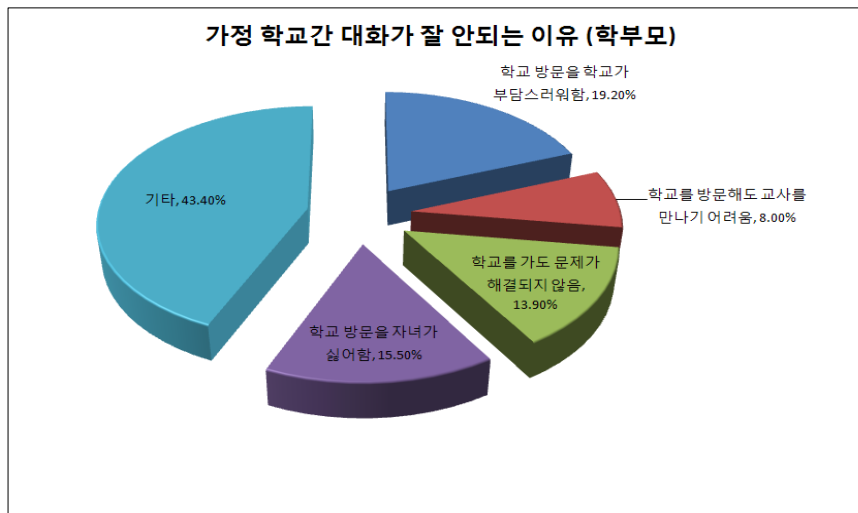
[그림 5-4] 학부모 상담주간 참여



출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방안

- ‘가정-학교간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 방문을 학교가 부담스러움’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5] 가정-학교 간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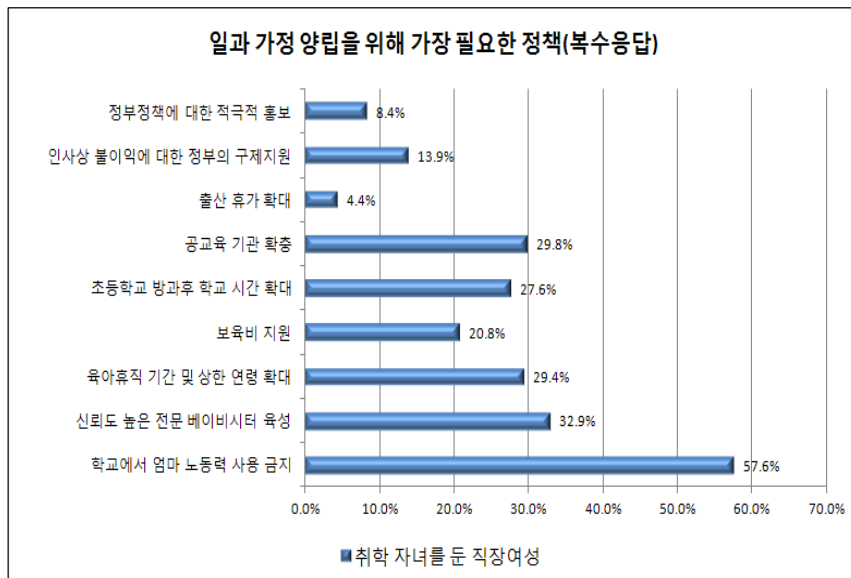
출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방안

□ 학교 운영의 보조적 역할 및 피동적 참여

- 학부모가 참여하는 많은 활동이 학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하기보다는 ‘관행화’하여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커 활동의 역동성이 떨어짐.
- 취학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교에서 엄마 노동력 사용 금지(57.6%)’를 선택하였음.

- 이는 ‘공교육 기관 확충(29.8%)’이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간 확대(27.6%)’ 등 자녀 교육과 직결된 정책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이 자녀 학교로부터 요구 받는 교육활동이 상당 정도 수동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그림 5-6]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출처: 예지은(2010).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Issue paper. 2010. 11 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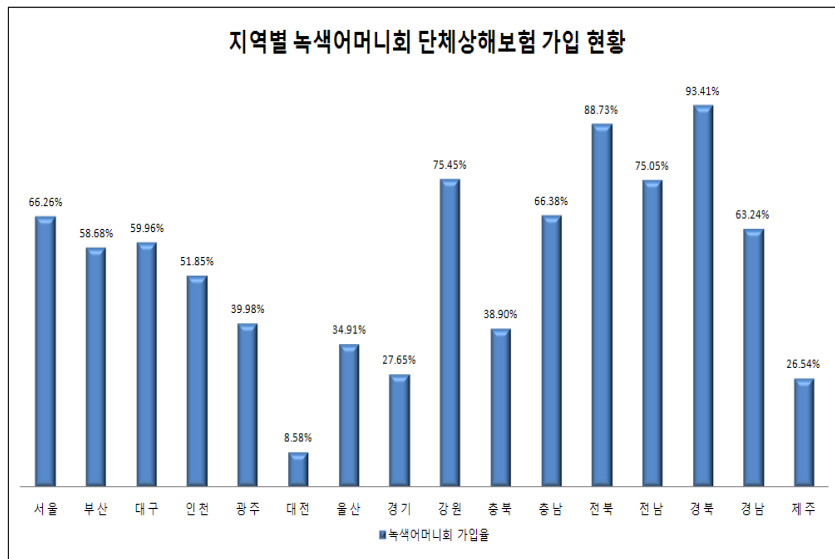
□ 학부모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정체계 부족

- 공교육의 많은 영역이 학부모의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단순 노력봉사 차원의 활동 내용이 많으며,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노력에 합당한 인정 및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인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에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됨.

※ 현재,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10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47.9%에 불과함.

[그림 5-7] 지역별 녹색어머니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현황



주: 경찰청, 2010년 연말 기준

출처: 김호연 의원실(2011). 보도 자료. 2011. 4. 7



## 제4절 정책적 실천 방안

### □ 정책의 주요 방향

---

- 학부모의 자율적 영역 신장 및 리더십 구축
  -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
  -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지역사회와 학교의 가교(bridge)로서 학부모 역할 강화
  - 학부모-교원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
- 

### □ 주요 정책실천 방안

---

#### 방안1. 학부모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체계 구축

- 1-1 학부모의 자율활동 영역 확보 및 지원
- 1-2 자율적 학부모 활동을 위한 예산의 독자성 확보
- 1-3 학부모회 중심의 자율적 연수활동 활성화

#### 방안2. 학부모 학교 참여의 질 제고

- 2-1 학부모 활동 내용 및 방식의 질적 개선
- 2-2 학부모 참여층의 다양성 강화
- 2-3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체계의 확대

#### 방안3. 학부모활동에 대한 학교 서비스체계 강화

- 3-1 학부모를 위한 학교 서비스 기능 강화
- 3-2 교사-학부모 간 신뢰성 제고
- 3-3 지역민과 일반 학부모의 참여구조 확장

#### 방안4.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 구축

- 4-1 학부모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4-2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4-3 학부모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방안 1. 학부모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체계 구축

### 1-1 학부모의 자율활동 영역 확보 및 지원

- 단위학교 ‘학부모회’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학부모회의 자율역량을 강화함.
  -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 학부모로서의 권리와 책무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자율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부모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회 운영의 우수 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고 자율적 활동을 지원
  -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 회의실, 학부모회 사무실, 학부모센터 등 학부모들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인하사대부고: 학부모 상담 봉사실 운영 〉

인하사대부고에서는 교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부모고충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상담 담당 학부모를 배치하여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해결함(주 3회, 1회 4시간 활동)

---

-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

---

〈 부평 서중: 학부모 1인 1 동아리 가입 운동 〉

부평서중은 투명한 학교경영과 신뢰받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1인 1 동아리 가입 운동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 경영을 펼쳐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학부모 동아리는 크게 봉사동아리, 명예교사 동아리, 교육지원 동아리 세 분야로 나누어 총 16개 동아리로 구성되며, 학부모들은 관심과 능력에 맞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직장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경우, 야간 학부모 모임을 통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 출처: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워크숍.

- 가칭 ‘전국학부모회협의회’와 같은 전국 단위의 학부모회 조직을 지원
  - 학부모들이 결집된 힘을 발휘하고 단위학교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에 뿌리를 두고 전국 수준에서 학부모회를 아우르며 학부모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부모 단체 구성이 필요함(이명희, 2009).

※ 미국: 전국학부모교사회(NPTA), 영국: 학부모교사회 전국연합(NCPTA),  
호주: 호주학부모협의회(APC), 일본: 일본PTA전국연합회

- 학부모에 의한 학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학부모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안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학부모의 자발성과 참여는 학부모가 학교설립·운영의 주체가 될 때 극대화될 수 있음.
  - 현행법상 학교법인 외 일반 법인이나 개인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전문대학, 유치원 등을 설립 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2조). 그러나 대안학교는 각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음(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4조).
  - 대안학교의 학교설립 및 의사결정 참여구조, 자원봉사 참여 등을 참조하여 제도권 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학교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영국: 'free school' 〉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제도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자선단체, 대학, 기업, 교육단체, 교사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설립희망자는 제안서 제출시 학부모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학교 운영비는 정부가 지급하며, 선발 시험은 금지되어 있는 공립학교로, 교사의 보수나 근무조건, 예산 운용, 국정교육과정, 수업 일수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는 자율성이 보장됨.

햄머스미스주의 서던던 자유학교(West London Free School)는 자유학교제도에 의해 영국 최초로 설립된 학교로서(2011년 9월 개교) 학부모 주도로 운영됨.

---

### 1-2 자율적 학부모 활동을 위한 예산의 독자성 확보

- 학교 예산 수립시 학부모 지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장
  - 학부모회가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교원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교육활동 지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예산의 운용이 중요함.
  - 학교회계 편성 시 학부모교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지원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장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 학부모 활동에 대해 일정정도 학교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학부모단체 운영 지원비가 편성되도록 함. 이를 위해 단위학교 학교회계에 ‘학부모 지원’ 항목 신설
  
-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학부모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기금 모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학부모회 스스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학부모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교육청, 지자체 후원 등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학부모회의 활동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배분과 지출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대
  - 학부모 개인의 부담과 부조리 발생 가능성 등으로 현재 학부모회비의 징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학부모 자율징수를 검토할 단계라 판단됨.

- 회계가 투명하고 자발적 학부모회비 조성이 가능한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학부모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표 5-12〉 주요국가별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

국가명	예산 조성 방법	회비 납부 여부 및 규모
미국	기부금, 바자회 등	연회비 납부(5~500달러)
일본	회비, 바자회 등	연회비 납부(3,600엔 내외, 공립학교는 교재비 등과 함께 일괄 고지서 발급)
영국	가입비, 자선바자회 등	연회비 의무화하지 않음
프랑스	회비, 지자체 지원금, 교육부 지원금, 기부금 등	연회비 납부(8~25유로)
핀란드	민간기부 등	회칙에 근거하여 납부(10유로 내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 1-3 학부모회 중심의 자율적 연수활동 활성화

#### ○ 학부모 주도의 교육·연수 활성화

- 학부모 교육을 정부 혹은 학교 주도로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나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며 학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연수하지 못한 채 교육정책의 단순 홍보 및 정책 전달 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 교육정책이나 학교정보, 자녀양육 지식 등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학부모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부의 정보 전달 노력은 더욱 강화하되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적 인력의 참여 및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회 지원
  - 전문성 있는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학부모 활동에 질을 획기적으로 고양할 수 있음. 학부모회가 주도가 되어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지원함.
  - 현재 학교 혹은 정부 차원의 재능기부 캠페인을 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으로 확산함.

## 방안 2. 학부모 학교 참여의 질 제고

### 2-1 학부모 활동 내용 및 방식의 질적 개선

- 학부모 참여활동의 폭과 깊이를 다변화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학생생활지도, 상담,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학부모 도우미 활동 등으로 폭을 확장하고 전문성 있는 학부모의 재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등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기와 재능을 가진 학부모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
  - 진로 및 직업 관련 교과 수업에서 해당 직업 학부모 초빙
  - 전문 지식 및 특기 보유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 강사로 채용
  - 과학실습보조원으로 학부모 활용
  - 저소득층 학생의 진로 및 생활지도에 학부모 멘토 활용
  -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학부모 활용

- 다문화 관련 사회교육 내용지도나 이중 언어 강사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활용

○ 학부모의 재능기부 관리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학교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특징과 요구사항, 학교시설이용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 창원 안민초: 지식 은행제〉

안민초는 학교 차원의 봉사관리 시스템인 지식은행제 운영을 통해 부모의 자격, 특기, 역량 등을 미리 파악하고 실제 봉사 가능한 시간을 등록하여 학부모들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총 225명이 회원등록을 하였고, 총 425명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

\* 출처: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워크숍.

○ 지역 사회 가용 자원의 최대한 활용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동아리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

〈 서울 광남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봉사 동아리 운영〉

서울 광남고 학부모회는 ‘광남누리21봉사단’을 결성하고 동부시립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봉사단은 학생봉사단과 학부모봉사단으로 구성되며, 학생봉사단은 동부시립아동센터의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고, 학부모봉사단은 체육대회, 바자회, 요리교실, 그림 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출처: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워크숍.



- 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단위학교 차원에서 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일으킬 수 있음.
  -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학부모 위원 참여 정도를 학교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학부모의 학교 정책 과정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

---

**< 대구 매곡초: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

대구 매곡초는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대를 위하여 모니터단을 교육과정, 학생활동, 학부모활동, 교내외안전, 사이버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학부모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시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수립하였음.

---

\* 출처: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워크숍.

## 2-2 학부모 참여층의 다양성 강화

- 아버지의 학교 참여 확대
  - 아버지들이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에 운동, 문화예술, 각종 탐구 프로그램 등 방과후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이로써 초·중학교에서 교원의 성별비율에 대한 우려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임.
  -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대, 아버지가 참여 하는 저녁·주말 행사 진행,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아버지 참여 강화, 아버지의 재능 기부를 통한 진로 지도 명예교사 확충 등

---

〈 서울 신동중: 아버지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

- 아버지와 함께하는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
  -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소중한 삶의 가치, 스승, 책, 좌우명 및 경제 활동 관련 실존적 자전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마련
- 아버지회 야간 학교주변 안전지도 활동
  - 매주 화, 목요일 20:30~21:30 (1시간)
  - 교내·운동장, 학교 인근 아파트 및 공원 주변
  - 활동 계획표에 따라 3인이 1개조로 함께 활동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 사례집 1.

-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 확대
  - 평일 낮 시간에 학부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밤, 학부모 야간 상담, 학부모회 총회 야간 개최, 주말 가족 캠프 등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 구조를 개설하여 직장인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 평상시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맞벌이 등으로 학교에 찾아올 수 없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회를 운영할 수 있음.

---

〈 전남 영광 해룡고: 학교의 문턱을 낮춰라 -찾아가는 학부모회 〉

전남 영광 해룡고는 찾아가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였음. 지역별로 날짜를 정하여 학교에서 교장과 담임이 지역별로 방문하고, 관내의 경우에도 학교가 아닌 제3의 지역을 회의장소로 이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대입제도의 변화나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한 부모의 의식 변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

178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취약계층 학부모 참여 확대 및 지원
  -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 학부모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 참여의 폭을 확장함.
    -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다국적 출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학부모 가이드 자료 개발 및 배포
  -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거나 학부모 멘토링을 통해 자녀교육문제 상담 및 지속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

---

〈 미국: 학부모정보자원센터(PIRCS) 운영 〉

- 자녀의 학업성과 창출과 학부모-교직원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학부모 교육, 학부모-교직원 협의회, 학부모 교육참여를 지원
  -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 소수민족 및 제한된 영어 구사자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지원액의 50%이상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2-3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체계의 확대

- 보상 및 인정 체계 강화를 통한 학부모 활동 내용의 질 제고
  - 학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학부모들의 자긍심, 보람, 만족감 및 성취감으로 이어질 때 활동의 내용과 질이 풍성해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보상이 필요함.
  - 학부모의 학교참여 자원봉사 실적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의 봉

사활동 시간 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등 실적의 누적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음.

---

〈 경남교육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 마일리지 적립 〉

경남교육청은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학부모의 자원봉사에 대한 월별 실적을 보고받아 일괄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신청하고 있음.

---

- 학교 및 교육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보상 및 인정
  - 학부모의 학교 정책과정 참여는 학부모로서의 책무성 강화뿐만 아니라 보상 및 인정 기제로서도 작용함. 교과서 선정, 재량 휴업결정(효도 방학, 수업일정조정) 등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의 직접적인 보상 및 인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학부모가 학교도서관 서서도우미로 봉사할 경우, 단순 책 정리만이 아니라 도서 선정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참여, 독서지도 등으로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학부모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음.
  - 국가 및 시도교육청 정책결정과정에도 다양한 참여 구조를 마련함.
    - ※ 교과부는 2009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학부모 대표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1명씩 포함시켜 의견을 수렴하였음. 교육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국가교육과정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본래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방안 3. 학부모활동에 대한 학교 서비스체계 강화

#### 3-1 학부모를 위한 학교 서비스 기능 강화

○ 정보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가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의 기본 전제임
- 단위학교는 교과별(학년별) 교육진도 운영계획, 학부모 상담주간 정보,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정보공시, SMS, NEIS 학부모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

---

#### 〈 대구 매곡초: 원격학부모 교육시스템 구축〉

대구 매곡초는 학부모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참여 장애요인을 최소화 하고, 아버지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학부모 연수 및 과제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사례 워크숍.

- 학부모 카페, 학부모 간담회 운영 등 다양한 모임과 학부모 제안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발생 시 긴밀한 협의를 추진함.

---

〈 부산 신남초: 학교사랑아이디어(제안제도) 〉

- 월 1회 쌍방향 가정통신문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
- 우수 제안 내용은 즉시 반영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 사례집 1.

- 학부모 활동 지원을 위한 학부모상담사 운영 확대
  -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및 고충처리 등 학부모 활동을 지원할 전담 교원 혹은 학부모 상담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부터 전국 20개교에 학부모 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음.
- 학부모 활동의 관점에서 학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여 체제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학부모 파트너십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보다 용이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학부모들의 온-오프라인 상의 교육정보 접근성 및 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 수업의 날, 학부모 상담 주간 등 공식적 학교방문 기회 제공, 자녀상담을 위한 교사 면담 등이 자연스러운 학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

---

〈 외국의 학부모 학교 방문 사례 〉

- ◇ Back to School Nights (단체면담): 미국
  - 학기 초에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선생님들을 만나 1년간 배울 학습내용 등에 대해서 소개받는 모임
- ◇ Parent-Teacher Conference (개인면담): 미국
  - 학기가 시작되고 ‘Back to School Nights’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에 아이들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적, 학업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논의
- ◇ Open House (학교공개): 미국
  - 선생님과 간단한 면담 후에 자녀들의 학습공간, 미술작품 등 학습결과에 대해 둘러보는 행사(보통 2학기에 개최)
- ◇ 학급학부모회-담임교사 회의: 독일(베를린주)
  - 연 3회 이상 학부모대표가 주관하여 학급학부모회와 담임교사 간의 자녀교육, 학교수업 등에 대한 논의 시간 마련(교육법 제89조에 규정)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 3-2 교사-학부모 간 신뢰성 제고

- 교원과 학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강화
  - 학부모의 열정을 학교교육에 긍정적 에너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 파트너십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이해가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의미, 교사와 학교의 현실적 교육역량 실태, 학부모와 교사상호 간의 인식 등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함.

- 다만,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적 견해와 전문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견지할 때, 상호신뢰의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음.

○ 교원 평가에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조항 마련

- 교원 평가에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교사-학부모 간의 양적, 질적 의사소통을 체크함.

3-3 지역민과 일반 학부모의 참여구조 확장

○ 타학교 학부모 및 일반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장

- 자녀의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 소속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 기회도 허용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이 자녀의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한다면 학교의 학부모 활동 지원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른 학교의 학부모 참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지역사회의 학교참여를 열어주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자원참여를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임.



## 방안 4.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 구축

### 4-1 학부모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과 교육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발의되어 있음.
  - 법률 주요 내용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연수 지원 및 학부모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 설립/ 교육 정책이나 학교 정보, 지원체제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등 포함됨.

---

#### 〈 해외 선진국의 학부모 지원법 운용 사례 〉

- (미국) NCBL 법에 학부모 의견 정례화와 정책제안 권리 및 반영 의무 명시
- (영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10대 권리(정보공개, 교직원예의 접근 등) 명시
-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독일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이며, 주교육법에 학부모의 교육참여권과 학부모회 조직을 명시하고 있음.

---

\* 출처: 최상근(2009).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 현재 공립학교에서는 심의 기관이며, 사립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관임.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과 다르게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 학부모의 피해(부조리)조사 및 대책 전담 기구 설치

- 학부모 대상의 피해구제기구가 없어 학부모로서는 상급기관(교육청 등)에 학교현장에서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대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등과 같은 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피해 및 부조리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4-2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 휴가제 실시

- 정부는 학교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학부모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되 유급휴가제 등 제도적 여건 조성에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직장인 부모의 학부모회 참여를 대체근무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 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배은희 의원, 2011.6, 환노위)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2011. 7. 27)

---

〈 학부모의 학교참여 휴가제 해외사례 〉

미국의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12개 주(州)는 학부모의 학교참여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콜로라도 주는 교사-학부모 면담 및 학교교육활동 참여 등을 위해 학부모에게 연 18시간 이내(월 6시간 이내) 학교참여 휴가를 허용하고 있음. 일부 주는 학부모가 학교 행사 참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에게 일정한 벌칙을 물리고 있음. 스페인·독일·일본 등도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 학부모 중심의 행정 체계 마련

- 학부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회계처리 업무 등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되도록 배려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
- 국가 혹은 지방정부(교육청)이 나서서 일률적으로 학부모 활동을 강제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현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맞벌이 학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저녁에 개최하도록 일률적으로 요구할 경우 오히려 일반적인 주부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저녁식사 준비, 학원 통학 지원 등).

○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학부모 지원 업무 실적 평가

-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의 교육정책 수립·집행과정 참여 정도, 교육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

#### 4-3 학부모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학부모지원센터의 전국 교육지원청(178개) 확대 등 인프라 구축
  - '11년 52개소에서 연차적으로 178개소 전체에 확대함.
- 학부모 참여 우수/성공사례에 대한 발굴과 분석
  -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
    - ※ 교과부는 2010년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아버지 참여 등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였음.
  - 학부모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 활동 백서 발간, 학부모 지표의 개발 및 활용, 학부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집 발간 및 보급
- 지방자치단체 지원 유도
  - 학부모-교육청-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지자체 종합적인 지원 대책 공동 마련
  -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 ※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서는 자자체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대덕 구청 연계 ‘좋은 부모 만들기’ 학부모 교육 실시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학부모지원센터는 대덕구청과 연계하여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기회 확대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부모 만들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대덕구청을 시작으로 동구청과도 연계하여 지역 거점 기관별 학부모 교육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교육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교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로젠타카데미)을 확대 실시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임.

---

## 참고문헌

- 강소연(2009). 건전한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학부모 교육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 및 가정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박영아 의원실,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0).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도교육청(2011).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아하! 그렇군요.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 학교참여 여론조사 보고서.
- \_\_\_\_\_ (2009).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굴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 \_\_\_\_\_ (2010).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 사례집.
- \_\_\_\_\_ (2011).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 \_\_\_\_\_ (2011).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추진계획안.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보고자료, 2011. 7. 27.
- 김득영·박경숙(2009). 가정·마을·학교 학습공동체 형성: 청계 학교 불런티어(VIPS)의 운영 사례, 미래교육공동체포럼 2009년 4차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숙(2001). 교육문화 비평 독일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교육비평. 제4권, 251~254쪽, 교육비평사.
- 김춘진 의원실(2011). 보도자료, 2011. 5. 4.

- 김태중(2007). 교육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위원회.
- 김호연 의원실(2011). 보도 자료. 2011. 4. 7.
- 미래교육공동체포럼(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경쟁력 제고.  
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사례 워크숍.
- 박보영(2009). 학부모정책 수립 및 시행의 철학적 기초 탐색. 학부모  
참여 정책과 해외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  
구실 편.
- 박진상(2009).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이해, 교육정책포럼 194호, 한국교  
육개발원.
- 백경선(2007). “교육열과 학부모 유형, 그리고 대안적 상상력”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인류학회·안암교육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  
회, 한국교육인류학회.
- 서울시교육청(2010). 2010년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울특별  
시교육청.
-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  
등교육연구. 제16집 제2호, 333~358쪽, 한국초등교육학회.
- 예지은(2010).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Issue paper. 2010.  
11. 삼성경제연구소.
- 오경희(2009).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열망에 관한 이해.  
열린교육연구. 제17권 3호, 127~148쪽, 한국열린교육학회.
- 우마이 마사유키(2009). 학부모의 교육 참여 사례(일본),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  
성화 방안 대전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
- 윤석진(2010). 학부모 이해 소비자권력이 된 학부모. 교육학논총. 제31

- 권 제1호, 19~43쪽, 한국교육학회.
- 이두휴(2007). 학부모 문화 연구: 자녀교육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 연구」,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3호, 135~165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명희(2009).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수광(2007). 「교육열과 학부모 유형, 그리고 대안의 상상력」, 한국교육인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3~174쪽, 한국교육인류학회.
- 이순형(2003).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의 혁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3권 2호, 1~20쪽, 한국비교교육학회.
- 이정호(2009). 학부모 교육참여 제도적 보장방안, 학부모 교육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 및 가정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박영아 의원실 ·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각(2011).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 이담북스.
- 인천시교육청(2011). 2010년도 방과후학교 전국 시도 모니터링 내용 및 답변.
- 조석훈(2006).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3호 통권 제64호, 367~390쪽, 한국교육행정학회.
- 주철안(2005).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의 학교 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일본 소학교의 학습참가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제9권, 118~130쪽.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최상근(2009).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숙희(1996). 「학부모 교육참여 운영방안」, 『열린교육연구』, 제4권 2호, 289~291쪽, 한국열린교육학회.

허종렬(2010). 학부모 정책의 법제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 보장 법제의 실태와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포럼. 2010. 11. 25. 한국교육개발원.

## 제6장

###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 제6장 | 요약 및 제언

### 제1절 요약

#### □ 창의적 체험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 ‘창의적 체험활동’의 추진배경과 도입 의의
  -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체험 및 방문활동은 사교육이나 개인적 차원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으며, 사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의 재능계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학교교육이 흡수해야 할 내용임.
  - 학교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비교과 영역의 강화는 방과후 학교와 더불어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 흡수 및 가족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수요를 공교육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의미가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력 구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창·체 편성부분에서 교사들이 중요시하는 영역과 실제 영역별 편성 현황이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어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편성의 물리적 환경 및 콘텐츠 구성의 어려움이 있음.
- 창·체 관련 교원의 행정업무에 관해선 업무가 일부 교사에게 쏠리는 현상을 지적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교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 창·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문제와 학교 밖 외 부활동을 학급별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지침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 국내외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부실한 직업 이해교육 실태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진학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초·중등학교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현황과 문제점으로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가치 판단이 전달되어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추구형 직종이 인기를 끌며, 학교가 제공하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교과서조차 언급된 직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왜곡된 직업관을 낳

고 있고,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도 심각한 상태임.

- 직업세계 이해도 증진을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이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안팎으로 직업이해교육 및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 교육기부의 개념과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 최근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이 교육기부 주체와 교육 수혜자를 효율적으로 연계 지원하기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기존의 인적기부 조직이 법인화하여 활동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부금품 경로 확보 및 인적기부 조직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시설 관련 기업이 주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교육기부에 있어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될 수 있음이 우려되며, 지역별 교육기부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연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교육기부는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의 관계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부와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기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
-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육기부 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교사, 교장 등 학교 구성원이 학습사회에서 지역 학습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됨.
- 그러나 한편으론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안과 그를 통한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 학부모 학교 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사회 ‘교육 에너지’로써 학부모의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활용하는 정책이 절실함.
-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제도권 밖의 사교육이나 해외교육으로 분출되는 계기로 작용함.
- 학부모의 교육 에너지는 공교육 내실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위상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요구됨.

-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단순히 공교육의 자원봉사자 확장 정도를 넘어 교육개혁 및 학교혁신의 추진동력으로써 위상을 재점검하여야 함.
-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학부모들의 요구
  -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법률에도 명시되어있는 학부모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 법령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 학부모 관련 조직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양적, 형식적 체계에 있어서 대체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학부모 교육 및 활동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주도하는 경향이 커서 학부모의 자발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가 참여하는 많은 활동이 학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하기보다는 ‘관행화’하여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커 활동의 역동성이 떨어짐.
  - 공교육의 많은 영역이 학부모의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노력에 합당한 인정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제2절 제언

###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 학교 전체의 창의성 교육 신장을 위한 매개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물리적·병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매개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정규교과과정 및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함.
- 창의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 않으므로 창·체 활동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사례에 맞는 구체적 컨설팅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연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목록화 하고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형성

### □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 단계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하며, 과목별로 교과서 등에 소개되는 직업세계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초·중등 단계 직업세계 이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접하고 폭넓은 직업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서 직업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함.
- 교육청, 단위학교, 교원 등의 직업세계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 정부부처별 협력체계 활성화, 학교와 외부자원의 협력체계 강화, 외부자원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 등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 방안

- (가칭) 교육기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육기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2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무형자산 기부의 효율적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기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부된 무형자산에 이용 신청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부 활동과 각 급 학교를 통해 접수된 교육기부 활용 내역을 기초로 하여 교육기부 참여자 또는 교육기부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 학부모의 자율활동 영역 확보 및 지원, 자율적 학부모 활동을 위한 예산의 독자성 확보, 학부모회 중심의 자율적 연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체계 구축
- 학부모 활동 내용 및 방식의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참여층의 다양성 강화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체계의 확대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의 질제고
- 학부모를 위한 학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일반 학부모의 참여구조를 확장하는 등의 학부모활동에 대한 학교 서비스 체계 강화

SUMMARY

**A Study on the Way of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in Individual Schools**

Seung-Bo Kim

Tae - Joune Park

Yoojeong Nadine Seo

**1. Outline of the Study**

The school career education in a post-industrial society which brings about diversification of vocational environment is predicted to take further important roles. The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MEST) introduced career activities into the school curriculum throug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xpanding 'career and job' textbook adoption by a elective course, and assigning career & academic counselors in secondary school.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the issues of career education in individual school level and sought the effective problem-solving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career education. It was

focused on analysis of case studies on individual schools and of main issues according to educational & environmental change based on reflecting manifold opinions of meetings with experts,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etc.

Related to drawing the practical policy of career education, this study tried to address the follows, firstl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reative hands-on activities were reviewed and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effectiveness of creative-hands on activities were suggested. Secondly, the various ways of expanding voc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were provided in the variety of perspectives. Third, the concept, necessity and policy implications of “donation for education” were presented. Lastly, the present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 **2. Policy Suggestions**

### **1) Effectiveness of creative hands-on activities**

It is required that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reative-hands on activities are managed to connect with and integrate into regular school curriculum & after-school activities. A major suggestion to support this is the policy investment for bring up specific consultants of curriculum in schools who may connect the school education with local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2) Promoting the vocational understanding in the level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ing**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have easier and more diverse access to helpful information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This could be possible by strengthen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ctivities in textbooks, by proliferating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by enhanc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schools and the resources.

**3) Reinforcement of school education through activating ‘donation for education’**

Building Support Centers of the “Donation for Education” and the link system between the recipients and donors were suggested, in which they could easily match up creative-hands on activities with proper resources and places. Besides, the donors for education needs to be authenticated officially in order to foster the donation culture.

**4)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education competitiveness**

Parents’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which take large parts of

share in school education are righteously approved and rewarded so that parents' autonomous culture mainly with the parent's association in individual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 방안

- 발행연월일 2011년 12월 29일 인쇄  
2011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박 영 범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264-4 93370
- 인쇄처 범신사 (02)503-8737